

# 1945년 이후 북한의 음악에 관한 연구\*

서우석 · 김광순 · 전지호 · 민경찬

<目 次>

I. 서 론	월까지의 음악사
II. 본 론	(3) 1953년 7월에서 1961년 9
1. 북한의 음악정책	월까지의 음악사
(1) 1945년 8월에서 1950년 6	(4) 1960년대의 음악사
월까지의 음악정책	(5) 1970년대의 음악사
(2) 1950년 6월에서 1953년 7	III. 결 론
월까지의 음악정책	참고문헌
(3) 1953년 7월에서 1961년 9	부 록
월까지의 음악정책	1. 창작 성악곡 목록
(4) 1960년대의 음악정책	2. 창작 기악곡 목록
(5) 1970년대의 음악정책	3. 창작 국음악 목록
2. 북한의 음악사	4. 주요연주단체목록
(1) 1945년 8월에서 1950년 6	5. 1948년에서 1955년 사이에 연
월까지의 음악사	주된 주요 작품들
(2) 1950년 6월에서 1953년 7	

## I. 서 론

한 민족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 속에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체제가 융합하지 못하고 또 다른 형태로 대립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해방후, 40여년이 지나면서 남·북한은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를 했다. 정치, 경제, 사회 뿐만 아니라 문화, 풍습, 민속 심지어는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없이 언젠가는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이고 통합되어야만 한

\* 본 연구는 1989년도 문교부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서울대, 음악이론

\*\*\*\* 서울대, 음악이론

\*\*\* 전주대, 작곡

\*\*\*\*\* 서울대, 음악이론

다는 원론적인 당위성만 가지고는 두 사회가 통합되기에 매우 어려워졌다. 때문에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 두 체제의 융합에서 오는 문화적 쇼크에 대비하는 길은,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이라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을 논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자료가 개방되지 않았고, 또 논의의 현실적 제한이 있고, 논자 자신들도 스스로의 금기 영역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의 경우만 하더라도 종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제한된 자료와 한정된 시각으로 북한의 음악을 바라다 보았기 때문에 많은 한계점을 지닐 수 밖에 없었고, 연구의 수준도 유추해석의 단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들은 표면에 나타난 현상을 알게 하는데는 다소의 도움을 줄지 몰라도 그 현상이 있게 된 배경과 본질을 이해시키는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나아가 왜곡의 위험성 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음악을 연구하는데 있어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연구에 필요한 일차적 기초자료 정리와 그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본 논문은 1945년 이후에서 1980년 이전까지 북한에서 행해진 추적 가능한 모든 음악관련 사항들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사회는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먼저 음악정책의 변천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시대별로 창작, 연주, 음악단체, 음악교육 등 음악의 제반분야의 변천과정과 특징 그리고 성격 등을 고찰하고, 부록으로 창작작품과 연주단체, 연주곡목 등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여 실도록 하겠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을 택하였고, 그를 위하여 국내에 소장된 관련문헌 및 자료를 수집·분석·정리·종합을 하고, 또 이를 근거로 북한음악의 특징과 성격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북한음악에 관한 자료 정리에 있는 만큼 평가에 관련된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 II. 본 론

### 1. 북한의 음악정책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의 음악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예술이 인류음악문화의 최고 이상을 실현하는 음악 예술이라고 보는 북한의 음악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삼고, 그 주체사상에 입각한 음악정책 아래서 모든 음악 활동을 전개시켜 나가기 때문이다(문예출판사, 1979b).

주체사상이란 인민의 노동에 중점을 둔 혁명이론으로, 이에 대해 김일성은 “인민은 개혁과 건설의 주축이며, 궁극적으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힘을 갖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인민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적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8)라고 말하고 있다. 예술에서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예술의 발전을 지향하고 독재주의와 노예제도에 반대한다는 사상이다. 그런데 이 주체사상은 당의 사상과 사회주의 이념이 실체화될 때 예술에 적용된다. 따라서 김일성과 당은 ‘김일성교시’ 또는 ‘당의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음악의 정책을 하달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가들은 김일성과 당으로부터 그들의 창작 작품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의 기준으로써 지도 및 원칙을 안내 받고 있고 또 이를 따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18).

이 때문에 북한의 음악은 ‘김일성교시’와 ‘당의 방침’ 아래에서 결정지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음악정책은 시종일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와 음악의 혁명화 그리고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짜여져 나갔다.

#### (1) 1945년 8월에서 1950년 6월까지의 음악정책

이 시기의 북한의 음악정책은 ‘민주주의 민족음악의 건설’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김일성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지만,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민족음악을 지켜왔다”고 지적하고, 1946년 5월과 9월에 소집된 예술인 대회에서 “음악예술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예술인들은 “반동세력을 물리쳐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인민대중을 애국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으로 교양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음악은 민족적 특성을 살리면서 혁명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은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고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아야 하며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고 새 생활창조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환희

와 기쁨, 궁지와 자부심, 혁명적 열정을 반영한 참말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음악으로 되여야 합니다”라는 교시를 내렸다(문예출판사, 1979b:20).

이에 대해 당은 김일성이 제시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노선에 의거하여, 민족음악유산을 비판적으로 이어 받고 외래의 선진 음악문화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새 사회,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악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그 세부사항으로 첫째, 일본제국주의 사상 잔재와 봉건사회에서 빚어낸 문화적 낙후성을 청산하고 둘째, 항일 혁명음악의 전통을 계승하여 진보적이며 사실주의적인 민족음악유산을 비판적으로 이어 받아 새로운 민주주의 민족음악을 발전시켜야 하고 셋째, 인민대중의 생활상과 의사와 혁명적 열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음악예술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서 반동세력을 물리치고 일제사상 잔재를 청산하며, 민족음악을 발전시키고 인민 대중을 민주주의와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시켜야 하며 정치적이어야하고 혁명에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음악인들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였고, 음악의 성격을 인민적이며 혁명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해방직후 북한에는 김일성과 당의 영향권 밖에 있었던 예술단체가 있었다. 평양예술문화협회가 그것인데, 이 단체의 협회장은 문학가인 최명익이 맡았고, 작곡가 김동진이 중심인물로 참가하였으며, 예술의 순수성을 지향하고 정치성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이에 당은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을 조직하여 평양예술문화협회에 압력을 가해 해산을 시켰다. 이때 김동진 등 많은 재북예술인들이 월남을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예술단체들을 한층 더 조직화할 필요를 느꼈다.

1946년 김일성과 당은 3월 북조선예술총동맹과 그 산하에 북조선음악동맹을 설치토록 하였고, 모든 음악활동을 당의 지시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북조선예술총연맹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문화예술을 전개하여 제국주의적 봉건적 반동예술의 세력과 그 관념을 소탕하고 인민대중의 문화예술수준을 높이며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외국의 선진 문화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강령으로 채택하였고, 북조선 음악건설동맹은 대중음악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조직될 음악전문단체들의 기초를 마련해 나갔다.

1946년 10월에는 당의 지침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북조선예술총동맹

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그 산하에 있는 북조선 음악건설동맹을 북조선음악동맹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북한의 음악은 당의 굴레안에서 당문에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조직·동원되는 임무를 띠게 되었다.

또한 1947년 3월 28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9차 상임위원회를 개최, '민족문화예술건설'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제시했다. 이 회의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정치·사상·교양 및 민족간부 양성 사업 강화와 근로 대중에서의 예술인 육성 및 각종 문예서클의 조직·강화 등과 같은 내용의 사업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1947년 9월 16일에 열린 제43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와같은 내용이 재확인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하였다. 첫째, 문화예술은 당과 인민의 이익에 복무해야한다. 둘째, 문화예술은 근로 대중을 선진 의식으로 교양시키는 사상적 무기가 되야한다. 셋째, 문화예술은 당과 국가정책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 넷째,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진보적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사회주의적 내용에 부합되는 새로운 민족적 형식을 찾아 창작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북한연구소, 1983:1122-1123).

이는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이라는 레닌주의적 문예관을 그대로 정책화한 것으로, 평화적 민주 건설시기의 문예정책을 대표하는 것이다(문예출판사, 1979b).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평화적 민주 건설시기의 문예정책을 대표하는 레닌주의적 문예관이 후에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예정책으로 대치되었다는 점이다. 1979년에 나온 「해방후 조선음악」에서는 레닌주의적 문예관을 삭제하고 대신 북한음악의 정통성을, 1930년에 있었다는 김일성의 교시로 잡고 있다. 즉, 1930년대 김일성은 "문학예술은 인민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대중을 혁명투쟁으로 힘차게 고무, 추동하는 정치사상적 무기로써 인민의 이익과 혁명의 이익에 복무해야한다는 당적이며 인민적인 문예노선과 활동방침을 제시했고, 개별적인 작품들의 사상 예술적 성과와 그의 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작가와 예술인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었고, 1천 2백여회에 걸쳐 문학 예술을 직접 지도해 주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음악은 이를 전통으로 하여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주주의민족음악건설의 길을 따라 우리 당의 영도밑에 평화적 민주건설시기 우리 음악예술은 새로운 사회역사적 환경속에서 빛나는 열매를 맺었다"(문

·예출판사, 1979b:26)라고 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북한의 음악정책은 당시에 행하던 음악정책과 후에 역사에서 해석하는 음악정책과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평화적 민주건설시기에 행해졌던 음악정책은 폐민주의적 문예관에 입각한 것이고, 후에 역사에서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2)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까지의 음악정책

이 시기의 북한의 음악정책은 ‘전시음악예술의 발전’이라는 이름아래서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전쟁기이기 때문에 모든 음악정책은 전쟁에 맞춰져 짜여졌다. 먼저 1950년 6월 김일성은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였다. 이 방송연설은 전쟁 전기간 동안 음악인들의 행동강령이 되었으며,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도록 음악가들을 고무시켰다. 그리고 1950년 12월 예술인들과 만나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문학예술의 임무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라는 교시를 내렸다(문예출판사, 1979b:89). 이것은 전쟁시기에 맞추어 음악의 임무를 새롭게 밝힌 것인 동시에 전쟁쟁시기의 음악의 성격을 규정지은 것이다.

이와 동시에 1951년 12월에는 전시에 견지해야 할 사상미학적 원칙으로 “예술가들은 예술을 민족적형식과 민주주의적 내용을 가진 인민적 예술로 되게 하며 국제주의 정신으로 일관되고 심오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을 가진 세계적 예술로 되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라는 교시를 내렸다(문예출판사, 1979b:90). 그리고 음악가들은 음악 작품에서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보여 주어야 하고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그릴 뿐 아니라 인민의 투쟁모습을 그려야 하고 사람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는 작품과 적에 대한 불붙는 증오심을 불러 일으키는 작품을 써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일성은 이밖에도, 예술에서의 자연주의와 형식주의와 추상성을 반대하고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것에 기초한 사실주의적 전형화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인민성을 높이고 민족적 특성을 선명하게 구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음악 정책은 ‘김일성 교시’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은 ‘김일성 교시’를 하달하고 집행하는 임무만 띠고 있을 뿐, 독자적인 지침사항은 없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음악정책을 비롯하여 문예이론, 음악가의 임무, 음악의 내용 심지어는 창작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김일성에 의하여 지시되었고 또 그 노선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지만, 월북음악가들을 비롯한 많은 음악가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김일성은 ‘전쟁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예술인들에게 당적 사상 체제로 무장할 것과 자기 비판을 강화해야 할 것 등 경고성 지적을 했다. 1952년 12월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는 이른바 반당반혁명 종파를 색출하기 위한 회의였다. 여기서 김순남, 이건우, 박은용 등 월북음악가 대부분이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이유로 1차 경고를 받게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북한의 음악정책은 ‘김일성 교시’로 일원화되고 또 곧바로 실천화된다. 이 사건을 1979년 북한에서 편찬된 「해방후 조선음악」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는 준엄한 시기에 당 안에 기여들었던 반당 반혁명종파들은 문학예술에서도 작가, 예술인들의 통일단결을 와해시키며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고취하는 등 악랄한 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문학예술분야에서 반당반혁명종파들의 이러한 책동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만 제때에 간파되고 적발분쇄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를 계기로 문예총안에 반당반혁명종파도당의 졸개들을 적발·숙청하고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이끌어 주시었다.

우리 음악예술인들은 음악예술인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곧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것으로 된다는 깊은 자각을 안고 대내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여독을 청산하고 음악예술의 사상적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하여 나갔다”(문예출판사, 1979b:99).

이것은 반체제 음악인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로, 이들은 얼마후 숙청을 당하게 된다.

(3) 1953년 7월에서 1961년 9월까지의 음악정책

이 시기의 북한의 음악정책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이라는 이름 아래서 진행이 되었다. 해방이 되자 북한은 모든 체제를 사회주의체제로 재정립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반체제 인사를 제거해야 했고 경제를 복구해야만 했다. 이것은 음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 시기의 모든 음악정책은 첫째, 반체제 음악인 제거 둘째, 전후 복구건설 셋째, 사회주의적 음악예술건설이라는 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1953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김일성은 “모든 것을 전투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라는 선언을 했다. 그리고 당은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당면 과업으로 내세웠고, 1953년 9월에는 전국 작가예술인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대회에 모인 예술가들은 김일성과 당이 제시한 기본방향과 과업들 속에서 자기의 기본 임무와 방향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대회는 ‘조선 문학 예술총연맹’의 해산을 결정했다. 이유는, 예술인들을 ‘문예총’에 집결시켜 놓았더니 쓸데없이 불평불만만 늘어 놓고 당과 수령을 비방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당의 경고와 함께 당면한 과업을 수행할 새로운 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문예총과 함께 그 산하에 있었던 음악동맹이 해산되었고, 1953년 9월 작곡가, 평론가, 이론가들의 전문단체인 ‘조선작곡가동맹’이 조직되었다.

당이 펼친 첫번째의 음악정책은 복구건설을 앙양시키는 창작 사업을 펼치는 것이었다. 새로 발족한 ‘조선작곡가동맹’은 이에 맞춰 “조국의 통일독립의 강력한 담보로 되는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 자기들의 창조적 재능과 정열을 다 바칠 것을 호소하고 로동 계급의 가장 선진적 인물의 창조하여 경제 과업에 걸기한 전체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고취하며 전시에 발휘한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를 건설투쟁의 승리에로 계속 앙양시키는 창작 사업을 진행할 것”(문예출판사, 1979b:62)을 결의했다. 그리고 많은 음악가들은 이에 동조하는 음악사업을 펼쳐나갔다.

당이 펼친 두번째 음악정책은 반체제음악인들을 제거하고 음악인의 사상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1952년 12월에 열렸던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은 몇몇 예술가들에게 반동적 부르죠아사상에 물들어 있다고 경고성 지적을 하였지만, 전쟁 후에도 남로당계열의 일부 음악가들은 당의 노선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당은 1954년 5월 음악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그 원인

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첫째 원인은 아직도 작곡가들이 당의 정책과 생활을 연구함이 미급하고, 둘째 원인으로는 지난날 형식주의 모다니즘 등 온갖 부르조아 음악 사상들의 발로를 반대하는 투쟁을 깜빡니 야적으로 전개하고 반사실주의 혜독적 잔재를 철저히 뿌리빼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작곡가들이 아직도 사회주의 사실주의 음악의 가치를 보다 더 높일 데 대한 노력과 음악 예술의 당성을 제고할데 대한 투쟁이 부족하는데서 오는 것이다(문예출판사, 1979b:72).”

이를 계기로 남로당계 음악인들과 당의 노선에 따르지 않는 음악인들을 모두 숙청했다. 교조주의, 형식주의, 예술지상주의, 도식주의 또는 간첩, 부르조아 반동예술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한편 1955년 4월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김일성은 “사상적 무장성을 강화 할 것”이라는 교시를 내렸다. 이것은 대중을 혁명적·계급적 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시였는데, 음악가들에게도 당성과 사상성, 혁명적 계급성을 강화시키는 강령적 지침이 되었다.

당이 펼친 세번째 음악정책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음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전후에 밝힌 김일성의 “전후 시기 음악예술의 기본 임무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공산주의 교양에 이바지 해야 한다”라는 교시에 입각한 것이다(북한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민족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것을 의미한다). 당은 사회주의적 음악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침으로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할 것, 인민의 생활 속에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갈 것 등의 과업을 내세웠다.

그런 한편 1955년에는 다른 모든 분야와 함께 음악에서도 일대 전환을 맞게된다. 그것은 바로 ‘주체’인데, 김일성의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창시했다고 하는 ‘주체적 문예사상’은, 해방 후 당의 시종일관한 문예방침이었지만, 195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었다. 1955년 12월 김일성은 음악분야에서도 ‘주체’를 세우도록 지시했고, 1956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과 함께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당의 문예정책을 철저히 고수하라고 지시했다. 음악에서의 ‘주체’란 조선 사람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음악을 창작 연주하라는 것으로, 이후 북한의 음악정책은 ‘주체’의 요구대로 전개되었다.

#### (4) 1960년대의 음악정책

이후 북한의 음악정책은 ‘사회주의적 음악예술의 전설’이라는 이름아래에서 진행되었다.

##### 1) 60년대 전반기의 음악정책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제 4 차 대회가 소집되었다. 여기서 당은 음악인들에게 사회주의 혁명과 전설이 심화 발전되는 새로운 사회역사적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적 음악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요구를 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음악인들은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사회주의적 음악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음악으로 천리마기수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해야 한다”(문예출판사, 1979b:236)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렸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 예술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 수 있습니다. 문학예술이 인민의 심장을 울리며 인민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내용과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 형식이 옳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찬란한 우리 민족예술의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선조들이 남겨 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모든 것이 우리시대에 활짝 꽂피게 하여야 하겠습니다”(문예출판사, 1979b:237).

이것은 전시대에 있었던 당의 문예정책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1960년대 전반기의 음악정책은 조선노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제기한 강령을 관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즉, 60년대 전반기의 음악정책은 당시의 음악예술의 총체적 과업인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고수 발전하고, 음악에서 주체를 세우고, 반동적 부르조아 예술의 독소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군중음악예술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김일성은 1964년 11월 예술가들에게 “혁명적 문학예술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라는 연설을 했고, 1966년 4월 작곡가들과의 대화에서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많이 창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1966년 7월 평양음악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음악에서 주체확립의 본질적 요구, 주체를 세우기 위한 기본방침과 방도를 밝혔다. 김일성이 밝힌 주체확립의 본질적 요구라는 것은 ‘조선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민의 감정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기본 방침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워, 민족음악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 방도로는 '민요를 중심으로 민족음악을 발전시키고, 민요를 바탕으로 창극 형식을 발전시키고, 민족적 감정에 맞는 발성법을 계발하고, 인민의 정서에 맞는 민족악기로 개조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음악에서 주체확립의 본질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침의 하나로서, '서양악기에 조선음악을 복종시킬 것이 아니라 조선음악에 서양악기를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교시를 내렸다.

한편 이 시기에는 영화음악이 정책적으로 발전을 하였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영화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1964년 12월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 할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라는 연설을 하면서, 영화에 음악과 노래를 많이 넣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영화음악은 영화의 사상성을 높이는 역할 뿐만 아니라 대중 속에서 널리 불리워짐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다.

## 2) 60년대 후반기의 음악정책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주변정세가 날로 복잡하고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과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맞는 전면적인 '혁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60년대 후반기의 북한의 음악정책 역시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과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요구에 맞는 음악예술의 전면적 혁명화"라는 방침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음악은 일대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북한의 음악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60년대 중엽에 이르기까지 우리 음악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음악예술의 전면적인 개화를 이루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예술의 본질적 정표를 완성한 것은 아니었다.

혁명 발전의 시대적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문학예술혁명을 힘있게 벌여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더 잘 이바지하는 주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예술의 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쳐 나아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우리 당이 밝혀준 바와 같이 문학예술혁명은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영역에서 온갖 낡은 것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주

체의 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혁명을 하여 음악예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노동계급적 선을 날카롭게 세워 우리 음악예술의 내용을 철저히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음악의 모든 종류와 형식에서도 착취계급사회에서 물려받는 온갖 낡은 요소들을 철저히 소탕하여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고 시대적 미감에 맞으며 인민대중이 잘 이해하고 즐기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이며 민족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주체적 음악예술로 만들어야 하였다. 그리고 또한 예술창조체계와 창조방법에서도 모두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확립하여야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 시기 음악예술의 혁명적 개조와 해방후 우리 음악발전의 그 어느 역사적 단계에서보다도 노동계급적 선을 똑바로 긋는 음악예술분야에서의 심각한 혁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문예출판사, 1979b:316-317).

이후 북한의 음악에는 온 사회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작품 창조라는 원칙이 정해졌고, 내용적으로는 혁명을 노래하거나 아니면 김일성의 위대함, 현명함, 덕성을 구가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그런 한편 1969년 5월에는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구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음악도 주체를 철저히 세워 민족적 특징을 더욱 뚜렷이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민족음악의 미학적 본질은 ‘우아하고, 절잖으며, 순하고, 부드럽고, 가벼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음악에서 민족성 특성을 구현하는 것이 주체확립의 근본요소가 되었고, 평가의 주요기준이 되었고, 당의 문예정책의 원칙적 요구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는 모든 분야의 혁명이란 김일성 1인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음악도 김일성 1인체제 완성을 위한 수단의 형태로 크게 변모하게 된다. 또한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남한에서 말하는 민족주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프롤레타리아 민족주의’라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 (5) 1970년대의 음악정책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 5차 대회가 소집되어, 70년대를 ‘혁명과 건설

이 심화 발전되는 시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김일성과 당은 70년대 음악예술의 사명과 과업, 그 방도를 밝혔다. 김일성과 당이 밝힌 70년대 음악예술의 사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 있고, 70년대 음악예술의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데 있다.

그런 한편 김일성은 이 사명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음악예술의 혁명화,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노동계급의 이념과 요구를 구현하여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예술로 개조하여야 하고, 인민적인 것과 반인민적인 것, 혁명적인 것과 반혁명적인 것, 노동계급적인 것과 부르조아적인 것,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명백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북한은 이와같은 내용을 가진 음악의 성격과 그 구현방도를, 1972년 12월 아예 법적으로 규정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70년대 이후의 북한음악정책은 단순한 정책과 지침이 아닌 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리고 문예이론도 아예 맵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 주의로 탈바꿈했는데, 김일성주의란 예술의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혁명과 전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자기나라 인민과 자기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방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이론들과 방침들을 내놓았다. 그것을 살펴보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이론’, ‘전형화에 관한 이론’,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 ‘문학예술의 창조 과정을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과정으로 삼을데 대한 이론’ 등이 있다. 이 중 ‘종자에 관한 이론’이란, 창작과정의 신비성을 배격하고 목적의식적 과정을 강조한 것으로,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서 종자를 똑똑히 잡고 그것을 잘 키우면 창작의 성과는 의심할 바 없다는 이론이다. 이는 창작과정의 신비성을 배격하고 목적의식적 과정을 강조한 것으로, 공산주의적 사상성이 없는 작품의 창작 그 근원부터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은 음악에서 주체사상과 혁명적 본질을 집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혁명가극’이라고 하면서,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작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혁명가극 창작에 대한 원칙과 방도를 발표하였다. 당에서 제시한 혁명가극 창작의 원칙이란, 가극의 내용을 혁명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일관시키고 그 형식을 인민적이며 민족적이고 통속적이며 현대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도는 음악을 인민음악의 기본형식인 ‘절가’로 일관시키고 자기 음악에 고유한 방창과 주체적 관현악, 자기식의 무용과 미술로 이루어진 인민적인 가극형식으로 혁명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70년대의 음악정책은 ‘사회주의적 음악예술의 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음악예술로 개조하기 위한 목적에 맞춰 진행되었다.

## 2. 북한의 음악사

### (1) 1945년 8월에서 1950년 6월까지의 음악사

이 시기를 북한의 음악사에서는 ‘평화적 민주건설 시기’라고 한다.

#### 1) 조직과 단체

해방이 되자 북한은, 문화를 레닌식으로, 지배계급의 문화/피지배계급의 문화로 이원화하면서 이 중 지배계급의 문화를 배격하고 피지배계급의 문화를 수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북한은 이를 ‘민주주의 민족문화’라고 규정하고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조선 인민 정신의 수립과 북조선 경제 토대의 인민적 소유는 문화 건설 사업이 조국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였으며 조선 민족 력사상에 처음으로 전 인민 대중이 문명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 인텔리겐차, 전인민 대중 자신이 새로운 조선 문학의 창조자로 나서게 되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29차 상무위원회 결정중에서, 문예출판사, 1979b: 3-4).

이와함께 당(조선로동당을 말함, 이하 “당”이라고만 칭하겠음)은 “조선 음악이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관철하며 근로 인민을 자기의 계급적 토대로 하는 당의 사상적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로동 계급을 선두로한 전체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엄격한 계급적 경향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음악의 임무와 성격을 밝혔다.

이와 같이 당에서 밝힌 맑스-레닌주의적이며 당적 원칙에 입각한 문예노선

은 해방후의 북한음악의 성격을 규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1946년 3월 25일, ‘북조선음악전설동맹’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각 도, 시, 군에 중앙 조직에 준하는 음악전설동맹 또는 음악동맹이 조직되었고, 곳에 따라서는 면에 이르기까지 그 지부가 조직되었다. 동 단체는 당의 지시에 따라 음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주요 사업은 당과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었고, 음악 보급 사업과 음악 계몽 사업도 병행하였다.

1946년 10월 11일에는 ‘북조선음악전설동맹’을 ‘북조선음악동맹’으로 개칭하여 조직과 사업을 보다 더 강화하였다. 동 단체는 중앙 집권체를 확립하여 당의 문예노선에 입각한 동맹 중앙위원회의 지도를 전체 맹원들에 침투시키는 사업을 강력하게 집행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음악은 명실공히 동 단체로 일원화 되었고 또 뚜렷한 목적지향성과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

참고로 ‘북조선음악동맹’의 조직 기구와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장 : 리면상

부위원장 : 김태연의 약간명

서기장 : 우철선의 약간명

상무위원 : 리면상, 우철선, 강효순, 김원균, 박광우, 김창실, 김태연

작곡분과 위원회 : 리면상의 약간명

성악분과 위원회 : 김완우의 약간명

기악분과 위원회 : 박한민의 약간명

경음악분과 위원회 : 김복윤의 약간명

평안남도 위원회 위원장 : 최영식

황해도 위원회 위원장 : 원홍룡

강원도 위원회 위원장 : 송병혁

자강도 위원회 위원장 : 백상범

함경남도 위원회 위원장 : 최인화

함경북도 위원회 위원장 : 김기덕

동 단체는 1951년 3월 5일까지 활동을 하였는데, 이때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900편에 달하는 창작품을 만들었고, 5,000여회의 공연을 가졌고, 「인민가요집」(1949년)과 「백곡집」(1949)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집을 편찬출판하

였다. 그리고 인민성과 사실주의 원칙에 입각한 음악운동을 펼쳐나갔고, 그에 따른 교양사업을 조직 전개해 나갔다. 또한 종교음악가들과 예술지상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모더니즘 사상의 소유자들을 폭로·규탄하는 것도 주요 임무 중의 하나였다.

한편, 연주단체로는 1946년 7월에 ‘중앙교향악단’이 조직되었고, 1947년에는 ‘북조선가극단’, ‘조선고전악연구소’가 조직되었고, 1948년 2월에는 이전에 생긴 모든 연주단체들을 통합하여 ‘국립예술극장’ 산하의 기관으로 만들었다. 이밖에 각 사회 단체의 적 할로써 1949년에 ‘로동자예술단’, ‘농민예술단’, ‘청년 예술단’이 만들어졌다.

‘중앙교향악단’(일명, 북조선교향악단)은 주로 관현악 작품과 교성곡 등 전문적인 음악을 연주하다가 1947년에 ‘국립합창단’과 ‘국립교향악단’으로 개편되었다. ‘북조선가극단’은 국립가극단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견우적녀”, “심청전” 등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조선고전악연구소’에서는 민족 고전과 창극유산을 연구 정리하고 창극배우를 양성하였으며 동시에 “춘향전”과 “홍부전”을 공연하였다. ‘국립예술극장’은 종합적인 성격을 띤 음악무용 예술단체로, “춘향”, “온달”, “꽃신” 등의 가극을 창작 공연하였고, 정기음악회 제도를 도입하여 인민 대중을 음악적으로 교양하는 임무를 맡았다.

음악교육기관으로는 1947년 9월 평양음악전문학교가 창설되었으며 해주에 있던 해주음악학원이 음악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49년 3월에 평양음악전문학교와 해주음악학원을 통합하여 본과 3년 연구부 2년의 학제를 가진 국립음악학교를 만들었다. 국립음악학교는 이후 평양음악대학으로 바뀌어 북한의 대표적인 음악인재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2) 창작분야

해방 후 북한은 ‘북조선음악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당의 정책과 혁명적 요구에 부응하는 창작사업을 펼쳐나갔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곡의 형태를 장르별로 분류하면 송가, 행진곡, 서정가요, 군가, 아동가요 등의 가요 종류들과 가요합창, 무반주합창, 교성곡 등의 합창음악 그리고 가극과 창극, 관현악과 각종 기악음악 들이 있다. 곡의 내용은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이른바 각종 “주제”들을 다루어야 했고, 인민성과 사실주의 원칙을 따랐다. 먼저 장르별 창작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요 : 가요는 해방 후 북한음악의 기본으로 발전하였는데, 그것은 가

요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의 제도 밑에서 인민 대중의 노래와 혁명의 노래로 전환된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항일 혁명가요의 전통을 잊고 있으며, 뚜렷한 사상적 지향성과 정치적 민감성, 강력한 호소성과 선동성 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가진 가요를 당 사상 선전의 위력한 수단으로 발전시켜 주체적 문예사상을 구현시켜 나가고 있다. 가요의 분야로는 송가, 행진곡, 서정가요, 민요식의 노래, 중창 등이 있는데, 이 중 송가는 국가나 영웅을 찬미하는 노래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있다. 음악적 특징이나 양식적 특징은 장엄하고 진취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다른 가요들과 비슷하나 내용면에서는 혁명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 모든 가요를 대표한다.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송가로는 “애국가”,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등이 있다.

행진곡은 일제시대 때 있었던 혁명가요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혁명투쟁을 고무하거나 혁명적 정열을 반영하거나 군의 사기진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선행진곡”, “민주청년행진곡”, “소년단행진곡”, “조국보위의 노래”, “보위행진곡” 등이 있다.

서정가요는 북한의 자연과 근로자들의 노동을 찬미하는 노래로, 서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연을 노래한 것으로는 “산으로 바다로 가자”, “봄노래”, “밭갈이 노래”, “벼가을하러 갈 때” 등이 있고, 노동을 찬미한 노래로는 “비료달구지”, “벌목부의 노래” 등이 있다. 이 시기에 쓰여진 서정가요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모두 민요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다는 점 둘째, 대부분 3박자로 되어 있다는 점 셋째, 정서가 밝고 약동적이며 흥겹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민요식의 노래는 서정가요와 비슷한 것으로, 보다 민요적인 노래를 말한다. 즉, 과거의 민요가 아니라 동시대의 민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1920~1930년대에 유행했던 이면상류의 ‘신민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후에 만들어진 민족가요나 다양하게 변천된 민요식의 노래 그리고 혁명가곡이나 민족가곡에 나오는 노래들의 모체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모내기 노래”, “바다의 노래”, “우리제도 제일일세” 등이 있다.

② 합창: 합창은 가요와 함께 가장 많이 보급된 것 중의 하나로, 많은 사

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단주의를 사회생활의 기초로 삼은 새사회의 요구에 맞는 음악종류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종류로는 가요합창, 무반주합창, 교성곡 등이 있다.

가요합창은 가요를 여러 사람이 부르는 것으로, 해방 초기부터 대중적인 노래종류로 등장하였고, 대중적 선전선동의 위력한 수단으로 쓰였다. 가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용도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이 되었다.

무반주합창은 예술적 기교를 요구하는 전문적인 음악양식으로, 예술적 기교와 주체사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분야이다. 이것을 북한에서는 사실주의적 편곡원칙으로 극복했다고 하는데, 사실주의적 편곡원칙이란 선율이 가지는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복잡한 기술적 처리보다는 주로 주성적 수법에 의존하면서 선율의 요구에 따라 간결하고도 독특한 화성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법성포 배노래”, “방아타령” 등이 있다.

교성곡은 서사시적인 내용을 담는데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압록강”, “평화옹호기치 높이 들고”, “역사의 선상” 등이 있다.

③ 기악 : 관현악곡, 취주악, 민족기악 등이 있는데, 순수예술성을 배격하고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이 중 관현악곡으로는 서곡, 교향시, 교향조곡 등과 각종 관현악곡들이 있으며, 표제성을 강조하고 있고 대중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향시 “향토”, 교향조곡 “바다의 전설”, 서곡 “춘향”, 관현곡 “농촌의 봄” 등이 있다.

취주악은 그 자체가 가지는 양양된 기세 때문에 초기부터 발달하였고 인민대중의 전진운동을 반영한 대중선동의 위력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종류로는 가요나 행진곡을 편곡한 것이 있고, “군대행진곡”, “청년행진곡” 등과 같이 취주악용으로 작곡된 것이 있고, “노들강변”, “양산도” 등과 같이 민요를 편곡한 것이 있다.

민족기악은 남한의 국악기악과 같은 것으로, 이 시기에는 “가야금산조”, “해금산조” 등과 같은 독주곡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통국악기를 그대로 썼지만, 후에 대대적으로 개량을 한다.

④ 가극과 창극 : 북한음악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가극과 창극과 같은 국음악이 발달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만 해도 고전과 전설물을 다루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으며 아직 뚜렷한 양식으로 발전하지 못

하고 새로운 방향만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가곡으로는 “춘향전”, “심청전”, “견우적녀”, “꽃신” 등이 있는데, 이 작품들은 후에 구라과 가곡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소박한 인민성이 있을 뿐 사상미학적 특성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선율에서 풍기는 민족적 서정성이 김일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후에 생긴 가곡의 모델이 된다.

창극은 민족음악의 계승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심혈을 기울인 분야이다. 이를 위하여 고전악연구소를 설치하였고 창극유산을 연구토록 하고 창극배우를 양성하는 한편 창극작품을 창작공연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춘향전”, “홍부전”, “장화홍련전”, “계월향”과 같은 몇몇 작품이 실험적으로 무대에 올려졌을 뿐, 본격적인 창극은 다음 시기에 등장하게 된다. 한편 주제별로는 다음과 같은 곡들이 창작되었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주제분야 :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찬양하는 주제분야 : “애국가”,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국가시책을 반영한 주제분야 : “산업건국의 노래”

세생활 창조를 반영한 주제분야 : “민주청년행진곡”, “녀성의 노래”

당의 혁명 무력에 관한 주제분야 : “조국보위의 노래”

항일 혁명 투사들을 다룬 주제분야 : “압록강”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다룬 주제분야 : “빨찌산의 노래”

이밖에도 당의 혁명노선과 정책, 각종개혁과 국가건설, 경제부흥 등에 관련된 주제들이 있는데, 이 시기의 종체적인 주제는 해방된 인민들의 혁명적 지향성을 반영하고, 인민 대중을 민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것이다.

## (2)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까지의 음악사

이 시기를 북한의 음악사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라고 한다.

### 1) 조직과 단체

1951년 4월, 당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산하 북조선 음악동맹과 남조선 문화단체 총연맹 산하 남조선 음악동맹이 통합되어 ‘조선 음악동맹’이 되었다. 두 단체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맹원 수는 종전의 300명에서 705명으로 늘었고, 조직도 대폭으로 개편되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장 : 리면상

부위원장 : 김순남

서기장 : 리범준

상무위원 : 리면상, 김원균, 김순남, 김칠성, 리전우, 강장일, 리경팔, 최

룡린, 안기옥, 박동실, 김기덕, 안기영, 리범준

작곡분과위원회 : 리면상, 김원균, 김순남, 리전우, 정종길, 김옥성 등

연주분과위원회 : 김기덕, 문학준, 최룡린, 리경팔, 강장일, 김완우 등

고전음악분과위원장 : 안기옥, 박동실, 정남희, 김진명, 조상선 등

평론분과위원회 : 리범준, 리면상, 우철선, 박은영, 김순남

평북도위원회 위원장 : 공익화

황해도위원회 위원장 : 류현근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 김인숙

자강도위원회 위원장 : 백상범

함남도위원회 위원장 : 최인화

함북도위원회 위원장 : 윤영기

기타 산하단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방송위원회 초급위원회

인민군협주단 초급위원회

내무성협주단 초급위원회

농민예술단 초급위원회

보위성군악단 초급위원회

로동자 예술단 초급위원회 등

동 단체는 창작 연주 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 자료들을 발간하고 이론강연회를 개최하고 음악 교양 사업을 펼쳐 나가는 등, 전쟁 중에 있었던 모든 음악 활동을 주도해 나갔다.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을 살펴 보면, 1951년에 가요곡이 122편, 합창곡이 56편, 실내악곡이 56편, 관현악곡이 15편, 무용곡 22편, 가극 2편이 만들어졌고, 1952년에는 가요곡 177편, 합창곡 40편, 관현악곡 18편, 무용곡 12곡, 가극 13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1953년에는 가요곡이 108편, 중창곡이 32편, 합창곡이 46편, 관현악곡이 19편, 무용곡이 31편, 가극이 8편 만들어졌다. 동 단체는 또한 「승리의 노래」(1952), 「영

광의 노래집」(1952) 등의 가요집을 편집·간행하였다.

한편 연주분야를 살펴보면, 전쟁이 개시되자 모든 음악 연주단체들은 전시 체제에 맞게 여러가지 명칭의 소편대연예공작대로 개편되었다. 여기에는 중앙의 단체들과 지방의 단체들이 총 망라되었는데, 그 임무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고무하기 위한 공연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1952년에는 소편대연예공작대의 일부가 본래대로 환원되었고, 일부는 계속 인민군과 함께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였다. 본래대로 환원된 단체들은 주로 북에서 인민들을 교양하는 임무를 떠었고 나머지 소편대연예공작대는 국립예술극장의 대남공작대와 인민군협주단 그리고 내무성협주단과 함께 남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임무를 떠었다. 이중 인민군협주단은 서울에서만 해도 여러차례의 공연을 가졌는데, 인민군협주단의 서울 공연을 계기로 많은 음악인들이 강제로 납북되거나 또는 자진 월북을하게 된다.

이 시기에 특이 할 만한 연주형태로는 손풍금반주와 민요제창형식의 노래들이 등장하였고 또 크게 유행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손풍금반주는 주체사상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민요제창형식은 군중들이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점을 특성으로 하여 인민들 사이에 대중적 영웅주의를 고취하고 전쟁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음악교육계의 변화로는, 1952년 11월 국립음악학교의 명칭이 ‘평양음악대학’으로 개칭되었고 학제도 예과 2년 학부 3년의 5년제 학제로 개편되었다. 교수내용과 교수방법들도 보다 선전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 2) 창작분야

전쟁시기의 음악 창작의 주된 주제는 미국과 싸우는 인민군과 인민의 영웅성, 필승의 신념에 기초한 혁명적 낙관주의, 적에 대한 증오심과 투쟁모습 등이었다. 이중 인민군대와 인민의 투쟁성을 반영한 조국보위주제가 모든 주제 중 으뜸이었다. 그리고 혁명적 낙관주의를 총체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 주제별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적 영웅주의와 완강성을 노래한 주제 : “결전의 길로”, “문경고개”,

“조선은 싸운다”, “조국의 고지”, “승리를 향하여” 등

전시생 산을 위한 투쟁을 노래한 주제 : “압록강 2천리”, “우물가에서”, “앞

마을 뒷마을” 등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주제 : “내 고향의 정든 집”, “전호속의 나의 노래”, “봄노래” 등

혁명적 낙관주의를 노래한 주제 :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등

한편 이 시기에 나온 가요는 전시가요의 형태를 띠고 투쟁의 강력한 무기와 가치로서 복무하였다. 전 시대와는 달리 송가가 없어지고 대신 행진곡이 가요의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그것은 전시의 인민군대와 인민을 전투적 투쟁으로 고무·추동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나온 행진곡의 일반적인 특성은 충성심을 기본사상감정으로 하면서 혁명적 낙관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결전의 길로”, “진군 또 진군”, “강철의 대오는 전진한다”, “청년유격대”, “해안포병의 노래” 등이 있다.

서정가요 또한 주로 전쟁과 관련된 것이 많이 등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상도 서정심리적인 것, 서정극적인 것, 서정서사시적인 것, 민요적인 것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박자 면에서도 4박자 계통의 곡들이 많아졌고, 악박자에서 시작하는 무거운 곡들도 많아졌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내고향의 정든 집”, “전호속의 나의 노래”, “문경고개”, “전사와 처녀”, “압록강 2천리”, “아무도 몰라”, “영광의 땅 보천보” 등이 있다.

민요식의 노래 역시 전쟁과 관련된 것이 많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열룩소야 어서 가자”, “물레야 동무야” 등이 있는데, 이 시기에 나온 민요식의 노래의 특징은 음악적인 면에서 보다 민요에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그런 한편 이 시기에는 집단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기동성이 높은 가요 장르가 필요했기 때문에 중창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중창은 독자성과 함께 독특한 양상을 띠고 북한의 고유한 음악종류로 자리를 잡아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격수의 노래”, “비행기사냥군조의 노래”, “우리의 사랑”, “풍년맞이 도리깨”, “샘물터에서”, “우리 님 영웅되셨네” 등이 있다.

합창음악은 행진곡 형식에 의거하여 기본음악형상을 전개시킨 작품들이 많았고 또 여러 곡을 묶어서 하는 연곡 형식의 작품이 많이 나왔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가요합창곡으로 “결전의 길로”, “영웅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복수의 노래” 등이 있고, 무반주합창곡으로 “전설의 노래”, 교성곡으로 “조

선은 싸운다”, “보천보의 화불” 등이 있다.

관현악분야에서는 표제성이 뚜렷한 교향시와 이미 알려진 가요나 민요를 바탕으로한 연곡 형식의 곡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교향시는 기악적 인 서술방식보다 가요적인 선율에 많이 의거하여 관현악적 형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연곡형식의 기악곡은 군중들에게 친해지기 쉽고 편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시 관현악 연주의 필수곡이 되었다. 대표적인 교향시로는 “승리를 향하여”, “승리” 등이 있고, 연곡으로는 가요연곡인 “승리의 거류”, 민요연곡인 “보리타작” 등이 있다.

취주악은 행진곡과 함께 전시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것은 전쟁의 전투적 환경이 취주악과 같은 전투적이며 호소력이 강한 양식의 음악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나온 취주악의 특징은 일반적인 표제가 아닌 구체적인 표제를 달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근위기치 앞으로”, “전차행진곡” 등이 있다.

이밖에도 “우물가에서”, “앞마을 뒤마을”, “진격의 노래” 등과 같은 가곡과 “춘향전”, “이순신장군” 등과 같은 창곡이 창작 공연되었는데, 이것들 역시, 모두 전시의 인민군대와 인민을 전투적 투쟁으로 고무·추동하거나 혁명적 낙관주의를 교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3) 1953년 7월에서 1961년 9월까지의 음악사

이 시기를 북한의 음악사에서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라고 한다.

#### 1) 조직과 단체

1953년 9월, 조선음악가동맹이 해산되고 작곡가, 음악이론가, 평론가들의 전문 창작단체인 ‘조선작곡가동맹’이 발족되었다. 이 단체의 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15 조선 해방은 우리 조국의 민주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정신적 제보로 되는 조선 민족 음악 발전의 온갖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우리 작곡가·평론가들은 조선 로동당의 문예 정책을 받들고 인민 대중을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민주주의 통일 자주 독립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을 기본 임무로 한다.

우리 작곡가·평론가들은 조선 인민이 창조한 민족 음악 유산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토대 위에 심오한 사상성과 예술성을 가진 조선 민족

음악을 창조함으로써 인민들의 높은 요청과 수요에 보답할 것이다.

조선 음악 예술의 창작 방법은 사회주의 해알리즘을 택한다. -이하생 략-”  
(문예출판사, 1979b:242).

이후 북한의 창작 음악은 ‘조선작곡가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갔다.

한편 1956년 4월에는 국립예술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이 독립되어 나가 교향악과 합창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임무를 맡았고, 국립예술극장은 가극을 전문적으로 창작·공연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한 국립고전예술극장이 국립민족예술극장으로 개칭이 되었고 여기에 속해있던 창극단과 민요단이 독립을 하였다. 그리고 대중예술극장이 새로 생겼고, 전쟁시기에 활동했던 이동예술대들이 음악무용종합예술단체인 도립예술극장으로 통합되었다.

1958년 3월에는 전국민족음악 단기강습회가 열려 연주가들에게 민족음악의 이론과 실체를 익히도록 했으며, 같은 시기 성악분야에서는 민족적인 발성과 창법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트대를 마련하였고, 기악분야에서는 민족악기(국악기)가 복구개량되었고, 개량된 민족악기의 주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다.

음악교육 기관의 변모를 보면, 1954년 국립예술극장 부속예술학교가 3년제의 학제를 가진 평양종합예술학교로 통합개편되었고, 음악대학은 1957년에 예비과, 전문부, 학부의 10년제 학제로 개편이 되었다.

이밖에 1960년 ‘민족음악연구소’가 창립이 되었는데, 동 단체는 민족음악에 관한 이론 및 실천적 자료수집과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임무를 지녔다.

## 2) 창작분야

이 시기의 창작음악은 ‘전후복구건설’과 ‘주체와 사회주의적 사설주의’ 창작방법의 고수 발전’이라는 김일성과 당의 방침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그리고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주제’가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고, 천리마시대를 반영한 주제가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송가가 많이 만들어졌다. 주요 주제들과 그 대표적인 곡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주제：“영광의 땅 보천보”, “밀림아 이야기하라”,

“오 눈보라 눈보라”, “빛나는 전통”

당에 대한 주제：“당의 기치따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사회주의 애국주의에 대한 주제：“내 나라”, “내 고향”, “평양은 마음의 고향”, “바다여 너를 반긴다”

창조적 노동에 대한 주제：“복구건설의 노래”, “사랑하는 나의 공장”, “농촌쳐녀”, “직포공의 노래”, “복구건설장으로”

천리마시대를 반영한 주제：“우리는 천리마타고 달린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한편 이 시기에 나온 곡들을 짚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요：이 시기에 나온 가요는 사회주의 음악의 본질적 특징을 보다 뚜렷하게 내재한 채, 사회주의 혁명과 전설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졌다. ‘송가’가 다시 모든 가요를 대표하게 되었는데, 해방직후에 만들어진 ‘송가’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중심을 이룬 데 비해 이 시기의 송가는 인민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노래로 확대되었고, 3박자 계통의 서정적인 노래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송가로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나의 조국”, “당이 가리키는 길로”, “당의 가치따라” 등이 있다.

행진곡은 전쟁이 끝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하게 발전이 된다. 그것은 천리마 기상의 반영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집단주의를 사회생활의 기초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이 집단적 가창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인 노래인 행진곡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는 승리했네”, “복구건설의 노래”, “조국통일행진곡”, “우리 길은 하나다”, “천리마 달린다”, “로동적위대 행진곡”, “청년사회주의건설자 행진곡” 등이 있다.

서정가요 역시 사회주의애국주의와 혁명전통을 기본주제로 하면서 보다 현실과 밀착이 되었다. 노래들은 한결같이 호흡이 길어졌고 클라이막스가 강조되었고 폭넓은 선율적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통속적이고 격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내 나라”, “내 고향”, “모란봉”, “사랑하는 나의공장”, “노래하라 압록강”, “청춘의 자랑”, “영광의 땅 보천보”, “평양은 마음의 고향”, “바다여 너를 반긴다”, “귀향의 노래”, “빛나라 청봉숙영지” 등이 있다.

민요식의 노래는, 음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전시대의 민요식의 노래는 거의가 굿거리장단에 의존하고 있고 국악기로 연주되는데 비해 이시기의 노래들에서는 장단이 다양화되었고 양악기로도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

으로는 “모란봉”, “해당화”, “개나리”, “소방울소리”, “만경대의 봄”, “그네뛰는 쳐녀”, “조국산천에 해 둥실 떠온다” 등이 있다.

② 합창 : 이 시기에 나온 합창은 가극과 창극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국음악에서 요구되는 극적 내용의 음악적 처리, 새로운 발성법과 창법, 전통음악의 현대화 등의 기술적 제반 문제들을 합창분야에서 많이 해결하였다. 합창음악의 분야로는 종전의 가요합창, 무반주합창, 교성곡 이외에 민족합창이 새롭게 생겨났다.

가요합창 분야에서는 군중가요를 합창으로 편곡한 것이 많이 나왔고, 그 사회적 기능면에서도 군중가요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당의 가치따라”, “우리는 승리했네”, “복구건설의 노래”, “조국통일행진곡” 등이 있다.

무반주합창은 전시대에는 전문성을 띠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와서는 인민들과 친숙해야 한다는 원칙아래에서 널리 알려진 가요를 편곡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봄노래”, “아름다운 고향”, “농부가”, “박타령”, “노래하자 조국산천” 등이 있다.

교성곡은 작품의 내용에서 현실을 과거와의 대비속에서 그 의의를 부각하는 구성방법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하면서 창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음악무용서사시와 음악서사시 같은 서사시적 양식이 새롭게 탐구됨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을 음악무용서사시와 음악서사시로 물려 주었다. 대표적인 교성곡으로는 “오직 수령이 부르는 길로 당이 가리키는 길로”, “승리자의 노래”, “아 나의 조국”, “평화통일의 노래”, “바다의 노래”, “강호영영웅”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음악무용서사시로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붉은 서광” 등이 있고, 음악서사시로는 “빛나는 15개 성상”, “청산리사람들” 등이 있다.

민족합창은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에서는 국악의 전통적인 창법이 없어지고 대신 맑은 목소리의 창법이 구현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부의 노래”, “아리랑조곡”, “놀량”, “닐리리조곡” 등이 있다.

③ 기악 : 이 시기 당은 기악음악이 새롭게 탄생되어야함을 지시했다. 왜냐하면 기악음악이 아직도 당의 문예노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은 기악분야에서도 ‘혁명적 주제를 탐구하고 민족적 특성을 뚜렷이 구현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을 북한음악사에서는 다음

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 음악의 기악분야는 반당종파분자들이 끼친 해독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후시기에 이르기까지 사대주의, 교조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인민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결음 뒤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기악분야가 자기 활동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혁명적 현실과 인민대중속에 더욱 깊이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적이며 현실적인 주제를 탐구하고 기술적 세련을 이룩하며 민족적 특성을 구현하는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다.”(문예출판사, 1979b:198). 이후 기악음악도 성악음악과 마찬가지로 표제성을 뚜렷히 했고, 주제의 성격을 명백히 하였으며, 인민성 구현이라는 뚜렷한 지향성을 보여 주었다. 이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향시 “조국을 위하여”, “향토”, “행복”, “빛나는 전통”, “혁명의 불길”, “항거의 불길” 등과 바이올린협주곡 “굴진공”, 바이올린독주곡 “고향마을”, “고향길” 등이 있다.

취주악 역시 현실적 주제를 다루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는 수령의 전사”, “천리마진군”, “구국투쟁가”, “불게 피는 사람들”, “보천보”, “월비 산의 용사” 등이 있다.

한편 민족기악은 민족악기 개량사업이 활발히 벌어진 것과 함께 특히 중요한 변모를 하게 된다. 전통악기들의 개량은 표현능력의 확대라는 면에 초점이 모아졌고, 그 결과 음역이 확대되었고 음량이 풍부하게 되었으며, 음색도 밝은 동시에 쳐량한 소리로 바뀌었다. 그와 함께 음율적인 면에서도 서양의 12평균율에 맞게 개조되었다. 그리하여 앙상블의 효과를 높혔고, 서양악기와의 협연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들이 민족관현악 “보천보의 해불”, 중주곡 “첫 봉화”, 관8중주곡 “황금별”, 대피리협주곡 “새날의 기쁨”, 피리협주곡 “협동마을의 경사”, 단소독주곡 “초소의 봄” 등이다.

④ 국음악 : 전후 첫 시기에는 주로 전시대에 창작공연된 작품들이 복구·개편되었고, 둘째 시기인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에는 주로 현실적 주제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가곡으로는 “밀림아 이야기하라”, “조선의 어머니”,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등이 있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북한의 가곡사에 한 획을 긋는 것으로 혁명가곡의 모체가 되는 것들이다. 또한 대표적인 창곡으로는 “황해의 노래”, “강건너마을에서 새노래 들려온다”, “선희공주” 등이 있는데, 이 작품들 역시 창곡에서 혁명적이며 사회주

의적인 주제들을 해결했다고 하여 북한의 창극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품들이다.

#### (5) 1960년대의 음악사

이 시기를 북한의 음악사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시기’라고 한다.

##### 1) 조직과 단체

1961년 도립예술극장이 가극을 창작·공연하는 도립가무단과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도립극장으로 분리되었고, 이와 함께 여성중창과 가야금병창이 전문화되었다. 1961년, 1963년, 1966년에는 전국예술축전이 열렸고, 1962년부터는 매해 전국음악무용개인경연대회가 열렸다. 1963년에는 민족악기전람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150여점의 복구개량 및 창안제작된 악기들이 출품되었다. 1965년 11월에는 국립교향악단의 합창단과 중창단, 국립무용극장의 일부단원들이 모여 음악무용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국립가무단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국립교향악단은 기악을 전문으로 하는 연주단체가 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국립예술극장은 가극을 전문으로 하는 국립가극극장으로, 국립민족예술극장은 민족가극을 전문으로 하는 국립민족가극극장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국립아동예술극장은 청년극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안에 새로 가무단을 두었다.

60년대 전반기에 연주단체들은 자기의 전문분야 활동을 하면서도 거의 가극의 창작 연주활동에 참가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 국립민족가극극장에서는 민족가극 “춘향전”을, 국립가극극장에서는 가극 “원한의 분계선”을,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는 민족가극 “녀성혁명가”를, 민족보위성아래에 있는 지구별, 군종별 협주단은 각각 “해바라기”와 “붉은 매”를 창작·공연하였다. 그 외에도 지방극장들도 가극을 적극 공연하였는데, 함남도가무단에서는 가극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와 “바다의 불사조”를, 평북도가무단에서는 민족가극 “무궁화꽃수건”과 “붉게 피는 꽃”을, 자강도가무단에서는 민족가극 “독로강반에 핀 꽃”을, 평남도가무단에서는 가극 “바다의 쳐녀들”을 창작·공연하였다.

1969년 4월에는 국립민족가극극장과 국립가극극장이 다시 통합되어 국립민족가극극장이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두개의 양식으로 분류되었던 가극은 주체적인 가극이라는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1969년 9월에는 1946년에 창립되어 내려오던 평양가무단이 그 기구와 이름을 개편하여 만수

대예술단이 되었다. 만수대예술단은 그 산하에 공훈남성중창조, 공훈여성중창조, 공훈여성기악중주조, 관현악조, 무용조, 창작조를 두고,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당의 주체적 문예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였다. 이외에도 60년대 후반기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안에 이미 있던 관현악단과 합창단을 모체로 한 영화음악단이 조직되었고, 조선인민군협주단도 기구가 확대되었다.

음악교육계의 변모를 살펴보면, 1966년 7월 김일성이 평양음악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음악대학에서도 주체를 세우라”는 지시에 따라 학생비율에서 민요와 민족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아졌고, 민족음악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민족악기와 민족선율에 의한 교체본이 많이 편찬되었다. 특히 60년에 후반기에는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요구에 맞게 음악예술의 혁명화’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음악교육면에서도 많은 변모를 겪게 되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음악대학의 민족음악학부의 비중이 더욱 강화되었고, 작곡학부의 작곡 및 지휘학과에 전문적인 민족음악작곡가, 민족음악지휘자 양성을 위한 교육지표가 새로 설정되었으며, 민족음악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 2) 창작분야

### ㄱ) 60년대 전반기의 창작음악

60년대 전반기의 음악창작의 중심 주제는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주제와 혁명투쟁에 관한 주제였다. 창작가들은 이 주제들과 함께, 현실 속에서 생활하며 창작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철칙으로 삼았으며, 현실 속에서 자기를 혁명화하면서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찾아내어 형상화하는데 부심했다. 이와 함께 주체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이 시대 창작음악의 특징이다. 먼저 60년대 전반기에 나온 곡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계급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하는 주제 : 가곡 “바다의 처녀”, “바다의 불사조”,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 등

인민들의 혁명정신을 반영한 주제 : 가요 “한손에 총을, 한 손에 낫과 마치를” 등

혁명전통에 관한 주제 : 가요 “눈이 내린다”, 교향곡 “백두산”, 여성중창 “어머니 당시여”, 교성곡 “로동당찬가”, 민족가곡 “무궁화꽃수건”,

“녀성혁명가” 등

전쟁에 관한 주제 : 가곡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붉게 피는 꽃” 등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관한 주제 : 가요 “원쑤의 가슴팍에 불을 지르자”,  
 저대협주곡 “노한 남해바다”, 교성곡 “노호하라 남해바다여” 등  
 반제반미투쟁에 관한 주제 : 가요 “반제투쟁가”, “승리의 한길뿐이다” 등  
 한편 이 시기에 나온 작품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요 : 이 시기에 나온 가요들은 모두 사회주의 전설에 관한 주제와 혁명투쟁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그와 함께 사상성, 정치성, 혁명성이 현저히 강화되었고, 혁명성과 함께 통속성을 띤 노래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영화의 노래’가 가요의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다.

송가가 이 시기에도 역시 모든 가요를 대표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해 갔다. 새로운 양상이란 다름아닌 서정성을 띠게 된 것으로, 이 서정성은 김일성에 대한 흠토의 정 또는 충성심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초병은 수령님께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가 있다.

행진곡은 반제반미투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대부분 전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적인 행진곡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국제정세가 날로 심각해지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강화되었다는 김일성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손에 총을 한손에 낫과 마치를”, “반제투쟁가”, “원쑤의 가슴팍에 불을 지르자”, “자력갱생행진곡” 등이 있다.

서정가요는 혁명적인 내용과 사상정서적인 내용 그리고 적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래로 바뀌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송가나 행진곡과 별 차이가 없지만 다만 음악적인 면에서 서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정가요로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눈이 내린다”, “어버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수령님 다녀가신 마을입니다”, “우리 행복 끝없어라”, “우리 사는 마을”, “내 나라는 좋아라”, “전우여 원한을 풀어주리라” 등이 있다.

민요식의 노래는 음계, 장단, 선율진행 등 음악적인 면에서 보다 전통민요에 가깝게 만들어졌고, 전통민요의 특성이 더욱 많이 들어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비단짜는 처녀”, “머루야 다래야”, “올농사 대풍이로세”, “창성

은 좋아”, “살기좋은 내고향” 등이 있다.

영화의 노래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통속성을 띠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남한에서의 대중가요와 비슷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후 북한의 음악에서 영화의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사회주의 락원일세”, “광복의 길 찾는다”,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라”, “해빛 밝은 내나라” 등이 있다.

② 합창 : 합창음악은 음악적인 면에서는 전시대와 별차이가 없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가요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변모를 하였다. 가요합창의 경우는 절가형식에 기초하면서 규모가 다소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초병은 수령님께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 이 영예 끝없어라”, “원쑤의 가슴파에 불을 지르자”, “반제투쟁가”, “승리의 한길뿐이다” 등이 있다. 무반주합창 역시 혁명투쟁에 관한 주제의 가요들을 편곡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 눈보라 눈보라”, “문경고개”, “산으로 바다로 가자” 등이 있다. 교성곡은 단악장으로 된 것이 많이 나왔고, 이것 역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한다는 이유에서 통속적인 것이 많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광의 길”, “빛나라 조국이여”, “노호하라 남해바다여” 등이 있다. 시와 함께 음악무용서사시와 음악서사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여러편의 작품이 나왔다.

③ 기악 : 기악분야는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당의 문예노선을 제대로 관철 시킬 수 있었다. 그동안 기악분야에서만은 유독 이데올로기가 배격된 작품들도 나오기도 했는데, 당은 이것을 복고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부르조아지적 예술지상주의 등의 이유를 내세워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당의 문예노선에 입각한 작품들만 나오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서양악기를 조선음악에 적극 복종시킨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이를 위한 작품들과 교체본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전체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먼저 교향곡으로 “백두산”, “광복의 화불”, “소교향곡” 등 10여편이 나왔고, 조곡으로는 “민요조곡”, “돈돌라리”, “별목부의 노래”, “방아간에서” 등이 나왔다. 그리고 첼로합주곡 “만풍년”, 바이올린독주곡 “우리는 행복해요”, “아름다운 고향”, 관현악곡 “동해의 뿌른 물결” 등이 나왔다.

취주악은 전 시대와는 달리 큰 규모의 작품들이 거의 없어지고 대신 당시 노선과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환영곡”, “승리자의 행진”, “붉은기증대행진곡”, “사회주의로동청년행진곡”, “수도의 아침” 등이 있다.

민족기악부문에서는 민족악기의 복구개량사업의 결과에 따라 개량된 악기를 위한 작품들이 많이 작곡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새로 창안제작된 금관악기들을 도입하여 104종의 민족악기들로 편성된 교향곡 “3천만의 뉘원을 안고”와 민족관현악 “경축”, “경축서곡”, “그날은 오리라”, 저대협주곡 “노한 남해바다” 등이 있다.

④ 국음악 : 종래의 가극이 새로운 형태의 가극으로 변모되었고 창극도 민족가극으로 대치되면서 내용도 혁명적인 것과 사회주의적인 것을 다루었고, 형식도 가요와 민요에 기초하였다. 대표적인 가극으로는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바다의 처녀”, “해바라기” 등이 있고, 민족가극으로는 “무궁화꽃수진”, “녀성혁명가”, “붉게피는 꽃”, “춘향전”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처음 출현한 음악무용극으로는 “밝은 태양아래”가 있다.

### ㄴ) 60년대 후반기의 창작음악

60년대 후반기의 창작음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이바지하여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음악예술과 주체의 음악예술로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는 당시 문예노선을 철저히 구현되었다. 기본주제는 혁명에 관한 주제이거나 아니면 김일성의 위대함, 현명함, 덕성을 구가하는 주제였다. 그리고 통속적이고 민족적이며 현대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① 가요 : 이 시기의 가요는 음악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의 시초를 열어놓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주제들이 구체화되었는데, 혁명전통에 관한 주제, 사회주의 제도를 찬양하는 주제,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주제, 공산주의로 나가자는 주제, 남조선형제를 위해 투쟁하자는 주제, 사회주의애국주의에 관한 주제, 자녀교양사업을 잘하자는 주제, 가정을 알뜰하게 꾸미자는 주제, 당정책교양에 관한 주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각 가요들의 이름도 ‘혁명적 송가’, ‘전투적 행진곡’, ‘혁명적 서정가요’, ‘당정책풀이가요’ 등으로 바뀌었다.

혁명적 송가란 혁명적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것으로, 이 시기의 대부분의

혁명적 송가는 김일성 찬양가로 일색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일성원수님은 위대한 인민의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그 이는 인민의 태양” 등이 있다.

전투적 행진곡은 당의 반제반미투쟁에 관한 전략적 방침을 노래한 것으로 인민들에게 전투적인 투쟁정신과 적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조선인민군가”, “남조선혁명투사의 노래”, “남조선유격대의 노래”, “미제의 각을 뜨자” 등이 있다.

당정책풀이가요는 이 시기에 처음 나온 것으로, 말 그대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풀이한 가요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0대 정강의 노래”, “주체사상 빛내이자”, “대안체계의 노래”, “노태하세 청산리정신 청산리 방법”, “혁명 전통으로 무장하자”, “모두 다 학습하자” 등이 있다.

서정가요 역시 혁명적 송가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로 일관되었는데, 혁명적 송가와 서정가요의 차이는 음악적인 분위기 면에서 밝고 진취적이냐 아니면 서정적이냐의 차이 뿐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령님이 계시어 행복합니다”,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수령님의 손길따라”, “아 수령님 품이여”,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 “끌없은 이 행복 노래부르네”, “오직 한 마음” 등이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영화음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북한의 음악사에서는 “우리의 음악예술을 혁명화하는 역사적 로정은 영화음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문예출판사, 1979b:367)라고 할 정도로 영화음악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영화음악이 매우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편단심 붉은마음 간직합니다”, “장군님 그리워”, “끌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 “오직 한마음”, “혁신앞으로”, “보람찬 우리 일터” 등이 있다.

② 합창 : 이 시기의 합창음악은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가요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합창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종전의 무반주합창과 교성곡 등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 대신 혁명적 송가합창과 행진곡적 가요합창이 합창음악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은 위대한 인민의 수령”,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천리마대

진군의 노래” 등이 있다.

③ 국음악 : 이 시기의 국음악은 일종의 과도기적 단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70년대에 나온 혁명가곡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몇몇 작품만 나왔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곡 “선희”, “밀림의 역사”, “태양을 따라서”와 민족가곡 “해빛을 안고”가 있다. 이밖에도 음악무용서사시로 “영광스러운 우리조국”과 방송음악서사시로 “새 력사의 아침”, “백두산은 말한다”, “인민의 태양”, “은혜로운 해빛아래” 등이 나왔다.

④ 기악 : 기악음악은 당시 제시한 주체적 기악창작방침에 따라 작곡을 하였다. 주체적 기악창작방침이란 근로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그들의 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주체를 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게 하는 방침을 말한다.

먼저 중주 분야에서 만수대예술단이 기악중주곡인 “세상에 부럽없어라”, “눈이 내린다”, “광복의 길 찾는다” 등을 내놓았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노래를 사실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편곡한 것인데, 북한에서는 이를 주체적 기악중주곡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관현악과 취주악 분야 역시 당시 제시한 주체적 기악창작방침에 따라 작곡되었으며, 대부분 이미 알려진 곡들을 관현악으로 편곡하거나 아니면 소재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관현악곡으로는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내고향의 정든 집” 등이 있고, 대표적인 취주악곡으로는 “김일성원수님은 위대한 인민의 수령”,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조선의 어머니”,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남산의 푸른소나무”, “봉화산기술” 등이 있다.

이밖에도 피아노독주곡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바이올린독주곡 “빨찌산의 노래”, 첼로독주곡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정채남독주곡 “만경대의 봄”, 민족기악중주곡 “자유가”, 민족현악합주 “조국의 진달래”, 민족관현악 “맑은 아침의 나라”, “은하수 강반에서” 등과 무용음악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사과풍년” 등이 이 시기에 나왔다.

#### (5) 1970년대의 음악사

이 시기를 북한의 음악사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시기’라고 한다.

##### 1) 조직과 단체 및 주요활동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은 먼저 극장기구들을 가곡혁명의 필요성에 따라

개편을 하였다. 이에따라 국립가무단과 민족가극극장이 해산되고, 1971년 7월 ‘피바다가극단’이 조직되면서, 이 가극단과 이미 있던 영화음악단을 통합하여 ‘영화음악극장’을 조직하였다. 영화음악극장은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창작 공연과 교향악을 비롯한 각종 기악곡을 창작 공연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였다.

1972년에는 가극을 전문으로 하는 ‘평양예술단’(후에 ‘모란봉예술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음)이 조직되었고, 1972년 말부터 1973년 초에 걸쳐 각 도에 있던 가무단이 가극을 공연할 수 있게 확대되면서 ‘도예술단’이란 이름으로 개편이 되었다.

이와함께 70년대 초에는 연주양식이 다양하게 바뀌게 된다. 즉, 만수대예술단을 본보기로 하면서, 가극배우들은 노래 뿐만 아니라 연기와 무용도 할 수 있어야 했고, 가극의 극적 줄거리를 음악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합창 형태인 방창제도가 생겼고, 음악무용종합공연에서 막이 없어지고 대신 흐름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운 연주형태로 ‘바이올린과 남성중창’, ‘장세남과 남성 4중창’,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여성독창과 남성중창’, ‘민족목관 4중주’, ‘혼성 2중창과 남성중창’, ‘민성과 양성을 배합한 합창’ 등이 나왔다.

교육기관의 변모를 살펴보면, 70년대에는 예술의 대중화 방침에 따라 예술전문교육기관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자강도에 ‘강계고등예술전문학교’가 생겼고, 각 도와 직할시마다 예비반 2년, 전문반 3년, 고등반 3년의 학제를 가진 고등예술전문학교가 생겼고, 평양음악대학에 전문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통신학부가 생겼다. 이 시기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주체사상, 당의 문예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음악지식과 높은 예술적 기량 그리고 건강한 체격을 가진 혁명적 음악예술인으로 키운다’는데 두고 있다.

그의 70년대의 주요활동을 보면, 이 시기에 대외음악활동과 민족악기기량 그리고 출판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대외 활동을 살펴 보면, 피바다가극단이 혁명가극 “피바다”를 가지고 1971년 9월에 중국, 1972년 1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알제리, 루마니아, 소련에서 공연을 가졌고, 만수대예술단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가지고 1973년 7월 말부터 2개월간 일본에서, 1973년 5월에 중국에서, 1974년 10월에 알제리에서,

1975년 5월에 소련에서 공연을 가졌고, 같은 시기 조선인민군협주단이 혁명 가곡 “당의 참된 딸”을 가지고 중국과 동구라파에서 공연을 가졌고, 소년예술단이 1975년 아르헨티나에서, 1977년에 불가리아에서 공연을 가졌다.

한편 60년대부터 진행된 민족악기개량사업은 이 시기에 와서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그 결과 고음단소와 단소, 고음저대와 저대, 대피리, 장재납 등이 제정·제작되었고, ‘흑류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악기가 창안·제작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해금과 비파와 아쟁이 민족관현악의 주선율을 담당하였는데, 70년대 초부터는 새로 제작된 ‘해금속’이라는 악기가 주선율을 담당하는 악기로 통일되었다.

70년대 들어 와 활발하게 진행된 음악출판 분야를 보면, “괴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청춘과원”, “남강마을녀성들”, “연풍호”, “은혜로운 해빛아래” 등 혁명가곡과 가곡의 총보들이 편집·출판되었고, 「괴바다노래집」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가곡노래집들과 당정책을 반영한 노래집들인 「만수대예술단노래집」, 「조선명곡집」, 「영화주제가집」, 「조선명곡600곡집」 등이 편집·출판되었고, 기악곡집으로 교향곡집 「괴바다」, 관현악곡집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내 고향의 정든 집」, 「문경고개」 등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일종의 음악논설집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가곡건설에 관한 주체적 문예사상론설집」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음악에서 주체, 인민성, 민족유산계승에 관한 혁명적 문예사상」 등이 내외 선전용으로 출판되었다.

## 2) 창작분야

70년대의 창작음악은 음악예술을 전면적으로 주체사상화하고 노동계급의 이념과 요구를 구현하여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예술로 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혁명가곡이 중심적인 음악장르로 등장하였고, 음악무용이야기와 혁명적 음악무용서사시극이 새로운 음악종류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주제가 기본 주제가 되었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는 것이 주제적 과업이 되었다. 주제별로는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전쟁시기의 인민들의 투쟁업적을 주제로 한 작품, 천리마 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을 주제로 한 작품, 당정책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나왔다. 이것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요 : 이 시기의 가요는 절가형식에 기초한 ‘우리식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식의 노래’란 “인민의 민족적 기호를 반영하여 그 선율이 유순하고 아름다우며 인민대중이 부르기 쉬우면서도 그 사상예술성이 높은 노래”(문예출판사, 1979b:421)이다.

이 시기 역시 가요의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한 것은 송가이다. 이 시기 송가의 특징은 전시대와 비슷하나 그 내용면에서는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들이 첨가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김일성원수님 만세”,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의 당”,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주체의 조국이며 길이 빛나라” 등이 있다.

서정가요도 송가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로 일관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조국에 대한 노래, 창조적 노동에 대한 노래, 조국통일에 대한 노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제의 노래들이 김일성의 위대함과 혁명함과 덕성에 결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음악적인 특이점도 보이는데, 종래에는 굽거리장단을 주로 썼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양산도 장단을 많이 썼고, 18/8 박자로 된 겹박자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전에는 기악곡이나 무용곡에서만 사용하던 반살풀이 장단을 많이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령님 우러러 영광 드리네”, “수령님 모신 영에 끝없습니다”, “수령님 밤이 꿀 깊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 고맙습니다”, “어버이수령님 가시는 길에”, “수령님 다녀가신 사랑의 길에”, “수령님 해빛아래 만풍년 들었네”, “사회주의 우리 나라 사랑하세요”, “충성의 일편단심”, “주체농사 꽂피여 우리 사랑 넘치네” 등이 있다.

행진곡은 본래 가지고 있던 전투적 및 조직동원자적 기능 외에, 온 사회를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과 사회주의 대건설에 부응하는 노래를 만들라는 당의 지시에 따라 더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싸워 가리라”, “사회주의대건설 총동원 앞으로”, “총과 마치 틀어쥐고 대건설 다그치자”, “3대혁명 가치높이 전진 또 전진”, “3대혁명붉은기 휘날려가자”, “3대혁명행진곡” 등이 있다.

민요식의 노래는 7음계를 사용하는 등 이전 시기보다 다소 현대화되었고, 내용면에서도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주제들을 그 이전 시기보다 많이 반영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백두산의 만병초”, “수령님 은덕으로 대풍이 들었네”, “천만년 노래하며 충성다하리” 등이 있다.

그밖에 영화음악으로는 영화 “꽃파는 처녀”, “누리에 붙은 불”, “영원한 전사”, “열관리공”, “산정의 수리개들”, “이 세상 끝까지”, “대지에 뿌리내린다” 등에 나오는 음악들이 있다.

② 합창 : 이 시기의 합창은 가요합창이 기본을 이룬다. 대부분 절가형식에 기초를 두고 있고, 사실주의적 편곡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일성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리”, “새해 인사를 드리옵니다”, “번영하라 조국이여”, “만풍년의 우리 조국 온 세상에 자랑하세”, “바다의 노래”, “언제나 수령님 우러러”, “수령님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리”, “4월의 명절을 노래하세” 등이 있다.

③ 기악 : 기악작품 역시 주체적 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작품을 만들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이 시기에 새로 나온 ‘주체적 관현악편성’이라는 것인데, 주체적 관현악편성이란 국악기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양악기를 전면적으로 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현악 편성을 말한다.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기악곡으로는 교향곡 “피바다”, 관현악곡 “문경고개”, “충성의 마음”, “아리랑”, “도라지”,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 바이올린협주곡 “사향가”, 기악중주곡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그네뛰는 처녀”,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간다네”,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꽃피는 이봄날에” 등이 있다. 그리고 민족기악분야에서는 민족목관 4중주 “새봄과 종다리”, 장재납독주곡 “혁명가요련곡”, “풍년든 금강마을”, 가야금독주곡 “초소의 봄” 등이 있고, 취주악곡으로는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혁명가”, “천리마대진군의 노래” 등이 있다.

④ 피바다식 혁명가곡 : 당은 70년대에 들어 서자 가극혁명을 선포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극의 첫 본보기로 1971년 7월 혁명가곡 “피바다”를 내놓았고, 동시에 ‘피바다식 혁명가극창작의 원칙과 방도’를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종래의 가극과 창극이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를 혁명가극이 차지하게

된다.

“괴바다”의 뒤를 이어 1971년에는 혁명가곡 “당의 참된 딸”이, 1972년에는 가곡 “은혜로운 해빛 아래”와 혁명가곡 “꽃파는 처녀”와 “밀림아 이야기하라”가, 1973년에는 혁명가곡 “남강마을 녀성들”, “금강산의 노래”와 가곡 “연풍호”가, 1974년에는 혁명가곡 “청춘과원”과 “두만강반의 아침노을”,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나왔다. 이 중 “괴바다”, “당의 참된 딸”,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가 북한에서 말하는 5대 혁명 가곡이다. 한편 70년대에 새로 나온 음악무용서사시곡은 괴바다식 창작 원칙과 방도에 기초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고난의 행군”, “두만강반에서의 한해 여름”, “대부대선회작전” 등이 있다. 그리고 음악무용이야기는 음악과 무용과 이야기를 결합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원의 노래”가 있다.

### Ⅲ. 결 론

북한의 음악은 ‘김일성교시’와 ‘당의 방침’ 아래에서 결정지워지고, 음악정책은 시종일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와 음악의 혁명화,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의해 전개되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30년대에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적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는 항일 혁명음악과 이면상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신민요를 전통으로 삼고 있다.

시기별로는 40년대에는 ‘당의 정책을 반영한 노래’가, 50년대 초에는 ‘전쟁을 고무시키는 노래’가, 휴전후에는 ‘복구건설의 노래’가, 60년대에는 ‘혁명전통을 교양시키는 노래’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70년대에는 ‘김일성일가를 우상화하는 노래’가 중심이 되었고, 각 시기 공히 인민과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문에 이론은 맙스-레닌식의 사회주의적 예술론에서 김일성의 주체이론으로 변모했고, 창작방법론으로는 사회주의적인 내용과 민족적 형식을 담는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고수하고 있으며, 창작곡의 내용은 반드시 당에서 제시한 ‘주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음악은 노동자계급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통속성을 강조하고, ‘우아함’, ‘아름다움’, ‘유연함’을 전통음악의 특성으로 보고

이를 보전 및 발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프톨레타리아 민족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음악을 비롯하여 예술지상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모더니즘을 배격하고, 순수 예술음악과 전통음악 중에서도 정악을 부르죠아 음악이라고 배격하고 있다.

남한에서 말하는 국악 또는 전통음악이라는 용어를 민족음악이라고 하며, 그 중 모든 정악은 부르죠아 음악이라는 이유로, 판소리와 전통발성법은 탁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없어졌고, 국악기가 대량 개량이 되었고, 60년대 이후 창극이 민족가극으로 대치되었다.

주요 음악형태로는 혁명가극, 음악무용서사시, 음악서사시, 음악무용이야기, 혁명적 음악무용서사시극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인 송가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기악곡보다 성악곡이 발달하였고, 대부분의 기악곡은 많이 알려진 가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주형태는 ‘바이올린과 남성중창’, ‘장세남과 남성 4중창’,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민족목관 4중주’ 등 매우 다양해졌고, 가극에서 극적 줄거리를 음악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합창형태인 방창제도가 생겼고, 극음악과 무용음악에서 막이 없어진 대신 흐름식으로 장면을 전환하는 형태가 생겼다.

모든 음악가들의 사명은, 음악으로 인민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운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 있고, 음악교육의 목적도 학생들을 주체사상과 당의 문예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적인 음악예술인을 만드는데 있다.

이밖에도 북한음악의 특징으로는 창작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당이라는 점, 재즈와 현대음악을 퇴폐적이고 난해하다고 배제하고 있다는 점, 여러 사람이 공동작업을 하여 만든 집체작이 많다는 점, 중국과 소련의 음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 조율체계가 서양식의 조율체계인 평균율로 통일이 됐다는 점, 음보다 가사를 중요시하는 가사 중심의 음악이라는 점, 모든 음악이 정치 또는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음악은 40여년이 지나면서 많이 변모하였고, 남·북한의 음악은 동질적인 면보다 이질적인 면이 더 많아졌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남·북한의 음악교류는 자칫하면 이질적인 것을 확인시켜 주고 적대심만 불리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북한음악의 연구는 한민족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한계성을 인식시켜 주고, 또 북

한음악에 대한 막연한 통경심과 상상력을 불식시켜 줄 것이며, 앞으로 있을 남북문화교류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음악의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정부는 악보와 가사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의 전면적인 개방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공산권문제연구소(편)

1978 「북한대사전」, 서울 : 공산권문제연구소.

#### 나인용

1984 “북한의 관현악곡 편곡의 문제점”, 「북한의 문화예술」, 서울 : 국토통일원.  
동서연구소(편)

1983 「북한인명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 문예출판사(편)

1983 「조선음악전집 1-6권」, 평양 : 문예출판사.

1979a 「민족기악곡집」, 평양 : 문예출판사.

1979b 「해방후 조선음악」, 평양 : 문예출판사.

1977 「조선명곡 600곡집」, 평양 : 문예출판사.

1975 「조선명곡집」, 평양 : 문예출판사.

#### 민경찬

“북한의 음악”, 「객석」, 1988년 10월호.

#### 북한연구소(편)

1983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 서우석

1980 「리시아의 음악가들」, 서울 : 은애.

#### 이종현

1988 「근대 조선역사」, 서울 : 일승정.

#### 이주철

1966 「북의 예술인」, 서울 : 계몽사.

#### 장사훈

1984 “북한의 국악”, 「북한의 문화예술」, 서울 : 국토통일원.

#### 조선작곡가중앙위원회(편)

1955 「해방후 조선음악」, 평양.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역)

1989 「북한의 문화정책」, 서울.

#### 한상우

1984 “북한의 가창곡 분석”, 「북한의 문화예술」, 서울 : 국토통일원.

#### 홍기삼

1981 「북한문화 이론」, 서울 : 평민사.

## 《부 록》

## 1. 창작 성악곡 목록

## (1) 가 요

곡 명	작사자	작곡자	작곡년도	
조선행진곡	김원균	김원균	1945	
고향의 밤		문경옥	1946	
산업전국의 노래		한식	리면상	1946
투쟁가		김원균	1946	
바다의 노래		김순석	박한규	1947
발갈이 노래		집체	합홍근	1947
빛나는 조국		박세영	리면상	1947
승리의 5월		박세영	리면상	1947
승리의 거류		박세영	리면상	1947
청년행진곡		김련호	김원균	1947
구국투쟁가		리원우	박한규	1948
녀성의 노래		리원우	김옥성	1948
벼가을 하려 갈 때		김순석	황학근	1948
산으로 바다로 가자		김조규	리면상	1948
새봄의 노래		김조규	리면상	1948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김우칠	박한규	1948
보위행진곡		안영	김옥성	1949
압록강		조기천	김옥성	1949
전차병과 처녀		집체	김옥성	1949
문경고개		조기천	리면상	1950
서울전차사단의 노래		김순석	황학근	1950
어서 보내자		고석상	리조영	1950
정찰병의 노래		집체	김옥성	1950
조국보위의 노래		조령출	김옥성	1950
진군 또 진군		집체	황학근	1950
강철의 대오는 전진한다		리문섭	김원균	1951
결전의 길로		석광희	김옥성	1951
탁동강		최석두	박용필	1951
복수하리라		정서촌	김혁	1951
승리하고 돌아오라		집체	박한규	1951
어머니의 노래		조령출	리면상	1951
우리님 영웅되셨네		박삼규	정진옥	1951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복원	김원균	1951
운전사의 노래	집체	박영	1951
자동차 운전사의 노래	심봉원	정진옥	1951
전사와 처녀	조령출	리면상	1951
전호속의 나의 노래	심봉원	김옥성	1951
풍년맞이 도리깨	김광현	윤승진	1951
내 고향의 경든 집	집체	리면상	1952
물레야 둥무야	조령출	리면상	1952
봄노래	집체	리면상	1952
비행기 사냥군조의 노래	리선용	윤승진	1952
샘물터에서	최로사	윤승진	1952
압록강 2천리	조령출	리면상	1952
영웅들에게 영광 있으라	집체	정진옥	1952
유쾌한 로동자	집체	김혁	1952
저격수의 노래	리선율	모영일	1952
파종도 전선일세	마우릉	라화일	1952
포위섬멸의 노래	최석두	리건우	1952
해안포병의 노래	석팔봉	박한규	1952
갈매기	김복원	리면상	1953
건설의 노래	김복원	김길학	1953
꾀풀새야 전하라	림정숙	김혁	1953
매봉산의 노래	박원철	유정철	1953
모두 다 인민경제 완수에로	정서촌	김길학	1953
물레야 돌아라	석팔봉	김원균	1953
복구건설의 노래	류종대	리천배	1953
복수의 노래	박세영	리건우	1953
뽕따리 가세	박원철	유정철	1953
아름다운 고향	집체	김복윤	1953
아무도 물라	정서촌	박한규	1953
우리는 승리했네	석팔봉	리면상	1953
우리의 자랑	심봉원	리건우	1953
인민군대에게 영광을	조령출	리정언	1953
조국의 노래	박세영	김혁	1953
철원령 고개	탁진	리면상	1953
청년 유격대	조령출	리면상	1953
청춘의 자랑	조순	김길학	1953
초병	권석재	리정언	1953
그네	조기천	박한규	1954
내고향	류지환	라화일	1954

노래하는 암록강	김복원	리정언	1954
돌아오는 길	집 체	리면상	1954
미제야 당장 물러가라	박세영	김 혁	1954
어뢰정의 노래	김순석	리면상	1954
정대기 날려라	박원철	김옥성	1954
황초령	티 맥	경봉석	1954
나의 수도여	집 체	리면상	1955
나의 조국	전동우	박용필	1955
노래하는 방직공	박명도	김문규	1955
대동강	조령출	리면상	1955
모란봉	최원근	강기창	1955
민청원의 노래	박세영	리면상	1955
틸보리 좋다	박원철	김문규	1955
영광의 땅 보친보	집 체	리면상	1955
우리 길은 하나다	정서촌	라화일	1955
웃음꽃이 만발했네	팀백운	팀현익	1955
자랑찬 바다길	주재욱	김복윤	1955
잣나무	티선을	리근수	1955
조국통일 행진곡	전동우	모영일	1955
종달새야 너도 노래 불러라	조령출	리면상	1955
풍겨라 해당화야	박원철	김문규	1955
홍겨운 목도	김우철	박규철	1955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원종소	박한규	1956
내 나라	집 체	김 혁	1956
당은 우리의 선봉대	김복원	리정언	1956
당의 기치따라	집 체	한시형	1956
당이 가리키는 길로	조령출	라화일	1956
동해바다	리호일	정락희	1956
명랑한 취사원	박원철	김문규	1956
사랑하는 나의 공장	티기준	궁경일	1956
소방울소리	김광현	김제선	1956
우리는 조선인민군	전동우	리면상	1956
적포공의 노래	집 체	김린욱	1956
통일의 기치 높이 앞으로	김복원	리면상	1956
고마워라 인민주권	전동우	한시형	1957
그네뛰는 처녀	최로사	김준도	1957
꽃피는 5개년 계획	김우철	박규철	1957
동백꽃	박세영	리진우	1957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정서촌	김길학	1957

림진강	박세영	고종환	1957
미제야 물러가라	집체	궁경일	1957
빼꽃새	최원근	모영일	1957
상봉의 날을 위해	전동우	모영일	1957
손풍금수 왔네	박원철	박한규	1957
옥분이의 신랑감	정서촌	리면상	1957
인민교원의 영예	리원범	김관일	1957
종달새	원석파	함홍근	1957
마다여 너를 반긴다	최석승	김길학	1958
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	박세영	김원균외	1958
일터의 휴식	리동준	리동준	1958
조국통일 한걸로	박세영	김혁	1958
청년 사회주의 전설자 혁진곡	리호일	김혁	1958
초병들은 나를 보고 폐꼴새래요	전강우	박활빈	1958
귀국동포환영곡	박세영	김원균	1959
나가자 료동당의 혁명전사여	강립석	김혁	1959
만경대의 봄	김재화	김진명	1959
새우재 끌쳐녀의 이야기	박원철	김문규	1959
수령님 초소에 오셨네	박광혁	리동준	1959
우리는 다같이 공산주의 락원을 향하여	조령출	김길학	1959
오늘도 만선일세	김복원	김제선	1959
우리 농장 축산반	김재화	윤영환	1959
가립천	현창성	김상성	1960
가마마차 달린다	김정춘	설명순	1960
굴포벌 10리	리선율	박시훈	1960
꽃피는 거리에	강전홍	김문규	1960
내 고향 백두고원	문경옥	문경옥	1960
내 고향 어머니풀	리매	타화일	1960
모두다 7개년계획 완수에로	박산운	조길석	1960
불타라 남녘아	리종성	김종수	1960
빛나라 청봉숙영지	리수선	김원균	1960
우리 당에 영광을	집체	김길학	1960
우리는 료동자 부부	백인준	김문규	1960
운반공의 노래	김동전	신유경	1960
일당백 초병의 노래	집체	김길두	1960
죽음을 미제침 악자들에게	집체	최류빈	1960
천리마 달린다	남옹손	김길학	1960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김상오	김옥성	1960
최령감네 평양구경	백인준	림현익	1960

평양은 마음의 고향	박세영	모영일	1960
형제여 나서라	집체	손창세	1960
꿀을 주셨네 사랑을 주셨네	안창만	김제선	1961
동촌치녀	김귀련	리근영	1961
높이 들라 항쟁의 가치	박선운	리건우	1961
당원의 영예	신운호	김창룡	1961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한찬보	리동준	1961
로동적위대 행진곡	안영	김성용	1961
밸치 산의 빼곡새	리별수	리인국	1961
삼지연의 전달래	남천록	리근수	1961
승리자의 노래	김상훈	김길학	1961
양어 장처녀	류종대	신용	1961
어버이 사랑을 노래부르자	김홍익	박활빈	1961
오 눈보라 눈보라	석광희	박한규	1961
옥류교원무곡	주재옥	김복윤	1961
울농사 대풍이로세	박명도	김준도	1961
우리는 자랑찬 천리마작업반	리호일	리건우	1961
조국산천에 해 동설 떠온다	조령출	윤영환	1961
조선의 전달래	집체	리동준	1961
창성을 노래하세	백인준	신영철	1961
청춘도시 평양에로	남천록	김덕모	1961
청춘의 희망	김상오	라화일	1961
초막집 재봉기	박광혁	리동준	1961
통일렬차 달린다	박선운	모영일	1961
포차야 달리자	한찬보	리동준	1961
한손에 총을 한손에 낫과 마치를	리호일	박송준	1961
행복의 노래	집체	김옥성	1961
혁명전사행진곡	김순석	한시형	1961
가야금아 울려라	김재화	신영철	1962
내나라는 좋아라	최로사	김준도	1962
내노래 나래 펴라	최로사	김문규	1962
만경대의 노래	조령출	김옥성	1962
바다의 처녀	김순석	박용필	1962
발걸음도 가벼워라	리신화	황창기	1962
배나무집에 경사 났네	정서촌	김제선	1962
번영하라 조국이여	박세영	모영일외	1962
산반공들 좋다네	김화겸	김문규	1962
선거의 노래	전동우	계경상	1962
오곡이 여물 때	리재화	리근영	1962

우리 중대에 신입병사 왔네	박원철	박한규	1962
우리는 블은기중대	권용일	김성후	1962
이 기쁨 이 영예 끝없어라	위원룡	동윤영	1962
장군바위	박원철	설명순	1962
창성은 좋아	리봉학	리건우	1962
초병은 수령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리호근	설명순	1962
행복의 탁월을 노래하네	리호일	모영일	1962
행복한 내 나라	김순희	송덕상	1962
장선의 봄	박세영	모영일	1963
구름속으로 사라진 마차	림종근	한삼판	1963
꽃피는 내 고향	조령출	모영일	1963
당의 해빛 아래	리선율	김문규	1963
동산에 사과꽃 만발했네	리호남	김덕모	1963
로동은 노래라네 기쁨이라네	김조규	한시형	1963
반제투쟁가	김원균	김원균	1963
빨찌 산의 너전사를 잊지를 마오	오영재	김혁	1963
빨찌 산의 세 전사	안호근	리동준	1963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조룡관	임기송	1963
우리는 사회주의로동청년	리호일	김혁	1963
종다리	전동우	한시형	1963
한줌의 흙	정서촌	김경선	1963
너보다 경다운곳 나는 몰라라	집체	리근수	1964
노호하라 남해바다여	박선운	리건우	1964
모를 심세	리 맥	김덕모	1964
마로 나라네	최창은	한시준	1964
봄맞이 쳐녀	김우철	김혁	1964
붉은바위	리종률	공정렬	1964
살기 좋은 고향마을	안호근	김광조	1964
승리의 한길뿐이다	리봉학	김혁	1964
어머니당이여	김재화	리면상	1964
원쑤의 가슴팍에 불을 지르자	리문섭	김원균	1964
자력갱생행진곡	오기형	최경윤	1964
초병은 노래하네	리범수	설명순	1964
폭풍을 뚫고 청년들 앞으로	김학연	김혁	1964
귀틀집 실물레	전강우	박월빈	1965
금강산을 찾아서	리호남	김홍린	1965
눈이 내린다	김재화	리면상	1965
비단짜는 쳐녀	최원근	정세룡	1965
살기 좋은 내 고향	김광호	설명순	1965

우리 행군 끝나지 않았다	최로사	김문규	1965
우리 행복 끝없어라	김순석	김연규	1965
화목한 마을	김상준	김정수	1965
공장총각 고향에 왔소	한찬보	리옹종	1966
내 고향의 봄은 좋아라	정서촌	김복윤	1966
내 조국을 지켜간다오	림호련	한시형	1966
번영하라 나의 대학	리재빈	공정렬	1966
분조농사 꽃이 피네	집체	김복윤	1966
사회주의 우리 농촌 꽃피워가리라	리승환	김정수	1966
수령님 다녀가신 마을입니다	박필모	김덕수	1966
우리 사는 마을	오영재	박용필	1966
우리는 기어이 가리라	박호범	리옹종	1966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림호련	김윤봉	1966
천리마대전군의 노래	리호일	김홍빈	1966
충성의 마음 영원하리라	리종성	김영신	1966
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제정균	윤영환외	1967
나가자 수도건설장으로	김광호	전봉남	1967
나의 공장 나의 벗들	박인서	김정수	1967
딸 삼형제	리일복	장현	1967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한상호	리근영	1967
봉화산기슭	안창만	리영숙	1967
빛나라 보천보	전강우	김정수	1967
선거의 노래	정서촌	윤영환	1967
수령님 다녀가신 협동별에 풍년이 들었소	김형재	리영숙	1967
수령님 손길따라 승리하리라	집체	김영신	1967
수령님께 충성다하리	김정춘	전창유	1967
수령님의 손길따라	림호련	김정수	1967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석광희	손창세	1967
어버이품	윤영탁	한살판	1967
우리는 청년돌격대	김형재	김정수	1967
울려가라 나의 노래	리범수	허금종	1967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전강우	김정수	1967
조선의 어머니	집체	김정수	1967
포평나루터	집체	차학철	1967
국토건설의 노래	손범수	리옹종	1968
그 사랑 가슴속에 넘쳐옵니다	량정무	김현덕	1968
그이는 인민의 태양	주민	김정수	1968
김일성원수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리범수	집체	1968
꺼질줄 모르는 사령부의 불빛	지용	박무준	1968

꽃은 계속 붉게 피리라	김동금	김정수	1968
남조선유격대의 노래	한상호	김윤봉	1968
노래 하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리종성	차학철	1968
눈내리는 밤에	윤광연	김정수	1968
다시 한번 비약의 나래 펼쳐자	박필모	김경선	1968
당의 품	주 민	김정수	1968
대안체계의 노래	주 민	리영숙	1968
모두다 학습하자	리시구	윤승진	1968
미제에게 죽음을	한찬보	리영숙	1968
보람찬 나의 일터	김룡답	전창유	1968
사령부의 불빛이 미처주는 길	최로사	김준도	1968
사회주의 내 나라	윤광연	김정수	1968
사회주의 농촌태제의 노래	집 체	집 체	1968
사회주의 우리 조국 빛내여가세	박영순	홍순태	1968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	주 민	김정수	1968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네	리영백	강영희	1968
아름다운 산새를 노래부르네	리범수	설명순	1968
울기 강기슭에서	윤광연	최영선	1968
우등불 타오르네	엄하진	엄하진	1968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한없이 좋네	조 빈	리 셜	1968
우리는 수령의 전사	김정춘	정시영	1968
우리는 지하초병	박필모	한시형	1968
우리모두 나라 전기 절약을 하세	손범수	리근영	1968
우리의 강반석어머니	안호근	손창세	1968
위대한 어머님의 사랑	집 체	김의선	1968
자녀교양의 노래	리계심	원숙경	1968
젊은 병사 박동무 식당근무 나갔네	김두일	설명순	1968
조국의 봄	윤광연	리영숙	1968
조국의 진달래	박필모	정세룡	1968
조선인민군가	리범수	라 국	1968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	신 전	설명순	1968
충성의 마음 수놓아갑니다	유해룡	리상룡	1968
혁명전통으로 무장하자	현창성	윤영환	1968
훈련장의 설참은 좋다	김동금	공정렬	1968
기자의 노래	집 체	고종환	1969
김일성원수님은 위대한 인민의 수령	로응렬의	김정수	1969
끝없는 사랑	지 용	김정수	1969
나라살림 알뜰히 하세	정덕칠	김성렬	1969
남녘투사의 노래	강전홍	설명순	1969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전병구	리학범	1969
농장마다 고기 풍년 가져오세	리계심	조승우	1969
다시 한번 대고조로	김광호	장문현	1969
미제의 각을 뜨자	송찬웅	한시형	1969
밀림이 셀 데인다	리범수	유명천	1969
마다 농사 풍년이로세	계정균	백인선	1969
봉화산 기슭의 맑은 샘물터	전강우	김경수	1969
봉화산의 박우물	김관식	박예섭	1969
부디 만년 장수하리라	리범수	유명천	1969
삶지연은 행복에 설레이네	어순희	김영신	1969
수령님께 초병은 그 언제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진병국	박동관	1969
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합니다	집체	박용필	1969
아 수령님 품이여	리효운	리면상	1969
어버이 품이여	송형률	박월빈	1969
여기는 천리마 내 조국이랍니다	박영순	강창렬	1969
우리는 농장의 주인	리상철	김정수	1969
우리는 언제나 수령님의 노래 부릅니다	집체	원숙경	1969
원양은 청춘의 활무대	신순현	박영진	1969
위대한 사랑의 길	정동찬	유명천	1969
장군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집체	박동관	1969
청성의 붉은 꽃 피워갑니다	집체	박용필	1969
직동령의 승리 방아	박원철	박월빈	1969
창성땅의 새노래	집체	강기창	1969
천리마강산에 행복은 넘치네	집체	강기창외	1969
청춘을 조국에 바쳐가네	신일남	김정수	1969
충성의 노래 삼가 드리네	집체	김영신	1969
투사의 안해	강전홍	김영신	1969
해빛은 강산에 넘치네	안창만	윤영환	1969
내 고향 청산리	주민	차학철	1970
노래하라 만경대 갈림길이여	리종성	김영신	1970
대동강 얼음은 풀리였건만	주민	김정수	1970
만경대 갈림길	리시구	김문규	1970
만경봉기슭의 초가집 등잔불	리재린	김봉준	1970
매야 매야 우리 마음 전해 주렴	김영심	김경복	1970
백두고원 종다리	김재화	김제선	1970
백전백승의 강철의 대오 조선로동당	한상호	김문규	1970
번영하여라 천리마거리여	석룡진	박무준	1970
부녀회원 무기공작	정국준	김영철	1970
북청교시 그 열매 온 나라에 주렁겼소	조령출	문경옥	1970

사령부를 찾아가는 길에서	안호근	유명천	1970
선거의 노래	집체	고종환	1970
수령님 보내주신 양떼 흐르네	전병구	박영진	1970
수령님 품속에 병사를 안겨사네	한상호	강창렬	1970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꾀였네	집체	리학범	1970
수령님의 품속에서 천만년 살아가리	조빈	홍순태	1970
수령님의 계시여 행복합니다	집체	구승해	1970
어머니당을 노래합니다	집체	리학범	1970
어머니당의 품이여	리계심	조승우	1970
어버이 사랑은 먼바다에도	집체	조승우	1970
영원히 당을 따라 충성다하리	백인준	구승해	1970
오늘의 창성	윤광연	리영숙	1970
온 사회 혁명화를 다그쳐가자	김종환	조승우	1970
우리는 너성을 사회주의 전설자	한상호	모영일	1970
우리는 수령님의 말이랍니다	리벌수	유명천	1970
우리는 항일 유격대	전강우	리영숙	1970
유서깊은 토기점의 귀를집이여	석룡진	박무준	1970
은혜로운 품	리관용	남동립	1970
인민들은 끝없이 충성한다네	리종성	김영신	1970
자주통일 한길로	리종성	리상룡	1970
주체사상 빛내이자	안경기	김옹걸	1970
창성을 살기 좋아라	박세영	최재선	1970
첫 시련	전강우	리영숙	1970
친절한 남새매대	리혁수	차학철	1970
푸른숲 설레여라	송찬웅	김제선	1970
희망찬 이 아침에 드리는 노래	윤두근	박병국	1970
갈매기 너와 함께 바다에 살리라	윤광연	김경수	1971
강반석어머님의 자장가소리	정동찬	엄하진	1971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	김두일	설명순	1971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김두일	유명천	1971
남조선 혁명투사의 노래	조빈	김윤봉	1971
대를 이어 충성하리라	김재화	김윤봉	1971
리별의 그날밤을 잊을수 없네	안호근	박병국	1971
박로인의 새집들이	손범수	정진옥	1971
백두령봉에 태양이 솟았네	박세영	강기창	1971
수도하늘 지켜가는 너전사의 영예	신운호	리동준	1971
수령님 부디 만년장수하리라	리범수	엄하진	1971
수령님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네	김두일	설명순	1971
수령님 해빛 안고 싸워갑니다	안경기	리학범	1971

수령님은 전국의 첫 삽을 뜨셨네  
 수령님의 그 은덕 온 나라에 비껴가네  
 어버이 그 사랑은 영원하여라  
 우리네 너성을 행복합니다  
 우리는 영예로운 체육선수  
 우리는 행복한 조선의 여성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하리라  
 장군님 품에서 자라난 처녀  
 전사들은 설날아침에 맹세다쳤네  
 충성의 붉은 마음 바쳐갑니다  
 친어버이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함박눈 내리는 그날 그밤에  
 견학은 막내동생 공장에서 만났네  
 그이는 언제나 전사들속에 계시옵니다  
 김일성원수님을 목숨으로 보위하자  
 나는야 너성중대 특무장  
 남매자의 밤이여  
 눈내리는 이 한밤 깊어가는데  
 대홍단샘 물가에 실안개 흐르네  
 만경대의 진달래  
 뱃째산의 녀전사령을 내리네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경강의 노래  
 삼지연의 봄  
 수령님 모시여 행복하여라  
 수령님 모신 영예 끝없습니다  
 수령님 뵈옵던 잊지 못 할 그 새벽이여  
 수령님 사랑속에 청춘은 빛나네  
 수령님 펼쳐주신 사회주의 내나라  
 수령님 품속에서붉게 피닙니다  
 수령님은 인민들과 함께 계시네  
 수령님의 은덕이지요  
 승리자의 영예 다시 한번 멀치자  
 아 잊지 못 할 무송의 고개길이여  
 안해도 초병이라오  
 어버이수령님 고맙습니다  
 영산강 기슭의 버드나무  
 영원히 충성다해 모셔가리라  
 우리 사랑 이만저만 아니라오  
 장군님 손길따라 용진 앞으로

구희철	강영희	1971
리혁수	리영숙	1971
박필모	홍순태	1971
리재린	김기주	1971
집체	서정건	1971
정동찬	정두명	1971
리종률	박왈빈	1971
리종률	설명준	1971
집체	박병국	1971
신운호	김영도	1971
신운호	리동준	1971
안호근	유명천	1971
한상호	강창렬	1972
함윤봉	김옹호	1972
신운호	리동준	1972
안호근	설명준	1972
신운호	리동준	1972
한상호	김연규	1972
집체	리동준	1972
윤석범	최재선	1972
리영백	함덕일	1972
림호련	한시형	1972
최로사	리건우	1972
집체	리동준	1972
집체	성동춘	1972
신순현	김영신	1972
한상호	위정현	1972
주민	리상룡	1972
송찬웅	김정수	1972
집체	리학범	1972
집체	리동준	1972
한관호	정두명	1972
구유길	김기주	1972
구유길	김기주	1972
동봉섭	리학범	1972
김현일	전봉남	1972
김두일	엄하진	1972
한덕수	리면상	1972
신운호	윤영환	1972

장군님 안겨주신 한흡의 미시가루	신운호	리동준	1972
장군님 지새우신 조선의 밤이여	리종성	김영신	1972
전승연단에 높이 오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	김홍선	설명순	1972
조선녀성 행진곡	정동찬	설명순	1972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김재화	김윤봉	1972
평양의 노래	박영순	김제선	1972
행복의 노래여 울려퍼져라	송찬웅	김연규	1972
남조선녀성 혁명가의 노래	집체	유명천	1973
노래하자 꽃피는 만경대	안익상	김영신	1973
령 넘어 구름 넘어 빼스는 달리네	리혁수	차학철	1973
빛나라 만수대여	주민	김정수	1973
새봄	정세룡	정세룡	1973
설레여라 향오동나무여	백하	리우룡	1973
수령님의 노래 부르면	황명성	리우룡	1973
승냥이 미체를 쓸어버리자	리범수	김광조	1973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감사의 인사드리옵니다	김승길	리근수	1973
최덕산의 대마위	조영	전봉남	1973
침략의 불길을 용서치 않으리	리범수	설명순	1973
한마음 수령님을 따르렵니다	차승수	정세룡	1973
한마음 한뜻이라네	리종률	허금종	1973
후방은 넘쳐마세요	김재화	강창렬	1973
‘꽃파는 처녀’ 근위대의 노래	리광근	모용일	1974
‘꾀바다’ 근위대의 노래	안정기	오완국	1974
3대 혁명 소조원 우리소조원	안윤식	김혁	1974
3대 혁명기치 높이 전진 또 전진	김재화	최재선	1974
강선의 노을	김재화	강창렬	1974
고마워라 어버이사랑	리종률	허금종	1974
김일성원수님 만세	집체	리면상	1974
만경봉을 제일봉	김두일	허금종	1974
미더운 3대 혁명소조원	신순현	차학철	1974
사회주의 대건설 총동원 앞으로	김재화	김윤봉	1974
사회주의 문화농촌 꽂피워가네	리호일	김제선	1974
사회주의 우리 조국 철벽으로 지켜가리	리종률	유명천	1974
새해 인사를 드리옵니다	리호일	리학범	1974
세금없는 우리 나라	김재화	김제선	1974
수령님 은덕일세	김재화	김제선	1974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김재화	성동춘	1974
수령님 해빛 아래 만풍년들었네	김재화	김윤봉	1974
수령님을 우리리 모시렵니다	신운호	최재선	1974

수산전선 돌격이다 전진 또 전진  
 아 그립던 조국강산아  
 아 남산의 저 푸른소나무  
 아 영원한 사랑의 품이여  
 어버이 수령님 가시는 길에  
 은혜로운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은혜로운 해빛아래 우리는 사네  
 조선은 하나다  
 조선의 목란꽃  
 천만년 밟을어 길이 모시리  
 3대혁명행진곡  
 결전을 앞두고 다지는 맹세  
 공산주의리상촌 이 땅에 솟았네  
 광복의 새봄을 수놓아가네  
 그 위훈 빛나는 김정숙녀사  
 금강의 방아소리 전선으로 울려가네  
 금골의 새아침  
 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  
 김정숙어머님을 노래합니다  
 김정숙어머님의 고향집이여  
 나가자 병사여 조국통일 위하여  
 남해가의 만경화 불게 피였네  
 노래하세 대홍단  
 더없이 소중한 너를 지켜  
 령 넘어 오고 가는 경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사령부 창가의 붉은 진달래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사회주의 우리나라 자랑하세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사랑  
 소사하의 밤  
 수령님 그 사랑 꽃피여 났네  
 수령님 모시고 길이 살리라  
 수령님 밤이 꽤 깊었습니다  
 수령님 위하여 한목숨 마치리  
 수령님 전사된 행복 끝없네  
 수령님께 영광을 드리옵니다

리광근	김기주	1974
리범수	유명천	1974
안호근	도영섭	1974
김재화	김제선	1974
안호근	엄하진	1974
안창만	최재선	1974
리종률	허금종	1974
안창만	성동춘	1974
리호일	김연규	1974
집체	설명순	1974
최준경	설명순	1975
윤두근	손창세외	1975
안호근	박명국	1975
안호근	엄하진	1975
리광제	김덕모	1975
리종률	리경	1975
현채련	서도룡	1975
윤석범	리경	1975
동봉섭	리학범	1975
신순현	차학철	1975
윤두근	설명순	1975
최준경	리봉룡	1975
안호근	설명순	1975
김두일	설명순	1975
최준경	설명순	1975
김재화	김제선외	1975
김두일	손창세	1975
리재련	김기주	1975
최준경	리봉룡	1975
최준경	설명순	1975
최준경	허금종	1975
최준경	유명천	1975
리종률	리경	1975
안익상	전봉남	1975
윤두근	김광조	1975
윤두근	리봉룡	1975
안호근	유명천	1975
김두일	설명순	1975
최준경	허금종	1975

수령님의 넓은 품은 따뜻합니다	티종률	허금종	1975
싸우는 고지로 탄약 이고 어서 가자	최준경	허금종	1975
압록강물결아 전하여다오	윤광연	리상룡	1975
어머님의 충성을 따르렵니다	김 혁	김 혁	1975
어버이 수령님 만풍년 주셨네	김재화	성동춘	1975
오산덕의 백살구 활짝 꽂혔네	리재린	김문규	1975
우리터 따르는 김정숙어머님	리계심	허금종	1975
우리 나라는 기적의 나라	최준경	유명천	1975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안호근	유명천	1975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까	안호근	설명순	1975
장군님 모시고 기어이 돌아오리	안호근	손창세	1975
전세계 인민들아 굳게 뭉쳐나가자	최준경	허금종	1975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안호근	허금종	1975
조선은 해와 별이 빛나는 나라	윤두근	박병국	1975
주체농법 꽂고여 만풍년 들었네	전동우	서정건	1975
천만년 노래하며 충성다하리	리종률	허금종	1975
철의 도시 밤하늘에 불은 눈이 내리네	리종률	손창세	1975
충성의 대답 “알았습니다”	유성옥	설명순	1975
통일의 광장에 수령님 모시고	최준경	유명천	1975
판가리 싸움의 시작이 오면	리종률	리봉룡	1975
풍년의 노래	리종률	김옹호	1975
행복의 첫 씨앗	윤두근	유명천	1975
혁명의 수도 우리 평양	리종률	엄하진	1975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싸워가리라	김재화	성동춘	1975
3대 혁명기 치높이 5대 과업 관철하자	김두일	설명순	1976
3대 혁명붉은기 휘날려가자	안창만	최재선	1976
3대 혁명붉은기 힘차게 날리며 앞으로	전병구	김제선	1976
강냉이 농사 대풍이 들었네	박필모	한시형 외	1976
금수강산 내 조국 수놓아가세	최준경	리 경	1976
노래하세 자동화의 새시대	한찬보	김제선	1976
당의 품은 한없이 따사로워라	송찬웅	리정언	1976
뜨락또르 물아가세	안정기	김연규	1976
만풍년 가꾸어 수령님께 기쁨드리리	윤광연	박무준	1976
빛나는 충성의 해방	리종률	리옹호	1976
사랑의 물소리 발에 넘치네	백 하	김제선	1976
사랑의 샘물	안정기	차학철	1976
사회주의 문화농촌 꽂고워가네	리호일	김제선	1976
산기슭 다탁발에 풍년이 드네	김정호	강영범	1976
삼화수송 좋구좋아라	박미성	김영도	1976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송찬웅	성동춘	1976
수령님 다녀가신 사랑의 길	집 체	최재선	1976
수령님 모시고 사는 이 행복	최준경	유명천	1976
수령님 부르시는 먼 바다로	석광희	김기명	1976
수령님 사랑속에 우리 행복 꽂피네	안창만	김제선	1976
수령님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리	안호근	유명천	1976
열씨구나 절씨구 만풍년일세	박미성	리 셔	1976
온 사회를 주체사랑으로 일색화하자	박미성	리정언	1976
올해에도 만풍년 이룩해가세	안창만	김제선	1976
우리는 일당백 수령님 전사	김재화	김제선	1976
일하기도 좋고 살기 좋은 내 나라	송찬웅	리 셔	1976
저 하늘의 선녀들도 팔달에 내렸네	박미성	성동춘	1976
주체의 요구대로 조선은 나아간다	안창만	김제선	1976
직포공의 마음	박필모	홍순태	1976
청산리의 새봄	안호근	김경수	1976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관철해가자	김재화	최재선	1976
청춘을 마치자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전강우	박무준	1976
총과 마치 틀어쥐고 대건설 다그치자	전병구	최재선	1976
충성의 영농준비 다그쳐가자	백 하	최재선	1976
치산치수의 노래	윤광연	박무준	1976
푸른 소나무	안창만	유명천	1976
풍년모를 어서 내세	한관호	백인선	1976
해빛밝은 탁원속에 우리는 사네	박필모	홍순태	1976
혁명은 부른다 당의 전사들 앞으로	안경기	변명서	1976
희망찬 청춘을 꽂피워가리	박 윤	설명순	1976
4월의 명절을 노래하세	최준경	허금종	1977
7개년 령마루로 총진군해가자	안창만	유명천	1977
교육테계 꽂피는 내 나라 제일 좋네	황명성	리봉룡	1977
군민의 정을 담아 발동소리 울려가네	리종률	설명순	1977
그 사랑 못잊어 뱡양나무 설레이네	박미성	홍순태	1977
기계화의 포전을 넓히여가네	신순현	박무준	1977
김일성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리	백 하	유명천	1977
남호두로 가시는 길에 주신 그 사랑	리범수	박명국	1977
농장별에 넘치는 군민의 정	리종률	도연섭	1977
다락밭에 봄맞이 가자	윤두근	리 경	1977
대렬훈련나날에 병사는 자랐네	박 윤	리용호	1977
대자연개조로 강산을 빛내자	전병구	김윤봉	1977
동무여 부르자 우리의 노래	신순현	김경수	1977
력사는 찬연히 빛을 뿌리네	한덕수	고종환	1977

로동은 노래로세	윤두근	허금종	1977
만경대 찾아가네	강 혁	엄하진	1977
만풍년의 생명수 넘치게 하세	전병구	최재선	1977
만풍년의 우리 조국 온 세상에 자랑하세	김두일	엄하진	1977
모란봉의 노래	윤두근	허금종	1977
밀영의 봄	리종률	유명천	1977
백두산의 만병초	안호근	유명천	1977
벼마다 강냉이 바다 설레이네	전병구	김제선	1977
빛나라 왕재산	안경기	허금종	1977
사람마다 젊어져 이 행복 노래하네	리정술	리 셔	1977
사랑의 길우에 노을이 불타네	송찬웅	최재선	1977
사회주의교육태제 찬란히 빛나네	백 하	이금종	1977
사회주의교육태제의 노래	안창만	최재선	1977
선거의 노래	전병구	김춘택	1977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김두일	엄하진	1977
수령님 높이 모신 우리 주권 다져가자	안창만	김문규외	1977
수령님 모시고 통일만세 부르자	안창만	김윤봉	1977
수령님 모시여 행복한 내 나라	최준경	엄하진	1977
수령님 우러러 간절한 마음	최준경	유명천	1977
수령님 우리리 영광드리네	백 하	최재선	1977
수령님 위하여 복무함	강 혁	허금종외	1977
수령님의 손길마다 공산주의 앞당기세	리범수	박병국	1977
아름다운 대동강	리종률	설명순	1977
아버지 수령님만을 모시고 따르렵니다	윤두근	리 경	1977
어서 가요 먼저 가요	리종률	박활빈	1977
언제나 수령님을 우리리	리범수	설명순	1977
온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	전병구	리정언	1977
우리는 공장대학생	송찬웅	김기홍	1977
유격구의 부녀회원들	김두일	유명천	1977
장령은 전사와 쌍보초서네	윤두근	설명순	1977
조국의 자연을 개조해가세	백 하	최재선	1977
주체의 나라 행복한 나라	전병구	리정언	1977
주체의 조국이여 길이 빛나라	리호일	김윤봉	1977
중대생활 좋다	김두일	설명순	1977
집집마다 닭들을 쳐요	박미성	김전일	1977
천만톤 새봄이 오네	박 윤	엄하진	1977
청산리의 버드나무	배현평	유명천	1977
최로인네 온 집안에 사랑가득 넘쳐나네	손범수	김제선	1977
풍년든 과원에 행복이 설레네	안정기	라 국	1977

풍년새야 날아라	리종률	1977
해바라기의 노래	백인준	1977
해병들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가네	김두일	1977
해빛밝은 만수대언덕	최준경	1977
해운전사의 노래	류민호	1977
행복의 포천에 생명수 넘치네	홍기풍	1977
행복의 풍년샘	백하	김제선
행복한 설맞이	오헤영	리용호
혁명의 무기를 얹세계 잡으리	강혁	김광조
혁명주권 다지는 경사가 났네	리건구	김기명
황금나락 물결친다	안호근	유명천
4월의 봄	리종률	리경
가을의 들길로 병사들 가네	김두일	리용호
관개수도 풍년 금나락도 풍년	최준경	김웅호
그 사랑 넘치여 쇠물은 흐르네	전병구	리학범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내 나라	윤두근	리경외
내 나라는 어때 가나 살기 좋아라	티영백	윤영환
내 조국은 꽃피는 인민의 나라	안정기	정세통
내 조국은 은혜로운 수령님 품이라오	송찬웅	리상룡
단조공의 마치소리 높이 울려라	안정기	박무준
도천리의 5월단오	박미성	경세통
들끓는 우리 박장	박미성	박무준
로동계급 새 문화로 꽂피는 내 나라	윤두근	허금종
만경대의 봄	최준경	유명천
만풍년의 금나락 거두세	최준경	엄하진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른 노래	한덕수	집체
백두산명승가	안호근	설명순
보람찬 로동으로 내 조국 빛내자	김성조	김제선
붉게 편 해당화	송찬웅	김린옥
사랑의 샘물 넘쳐나네	박윤	김옹호
사랑의 품	경덕철	김성렬
사랑하는 내 조국 수령님 품이여	김성조	유명천
수령님 그 품은 은혜로워라	최준경	유명천
수령님 꽂펴주신 행복의 락원일제	배현평	김제선
수령님 따르는 마음	송찬웅	강기창
수령님 마음속에 모시고 사네	류민호	모영일
수령님 영원히 모시고 살리	백인준	김제선
수령님 우리리 부르는 노래	최준경	손창세
수령님 은덕으로 풍년나라 되였네	백하	김제선

수령님 전사로 충성하리라	윤광연	박무준	1978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안호근	리 경의	1978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리	한찬보	리영립	1978
아름다운 평양	홍기풍	강영범	1978
어지돈의 노래	털호련	차학철	1978
언제나 오고싶은 만수대	신순현	김영신	1978
영광 빛나리 공화국기치여	안정기	김윤봉	1978
영원한 충성의 꽃을 피우리	한상호	김덕수	1978
예가 바로 우리 마를 나서자란 고향일세	리정술	리상룡	1978
우리 군대 또 왔어요	리범수	리용호	1978
우리 마음 꽂피는 만경대	박미성	박무준	1978
우리 희망 우리 기쁨 이 땅에 꽂피워가네	안정기	리정남	1978
우리네 농촌은 도시를 닮아가요	최준경	설명순	1978
우리는 3대 혁명소조원	리재린	백인선	1978
우리는 농촌지원자	신순현	리상룡	1978
우리는 청춘을 빛내여가리라	안창만	김재선	1978
우리모두 군민일치 꽂피워가자	리종률	설명순	1978
우리의 아버이 김일성원수님	김재화	유명천	1978
유격구마을에 쌍그네 나네	강 혁	박병국	1978
유격대 군복감을 어서 짜세나	정동찬	리면상	1978
유격대 말파리 달리네	황명성	설명순	1978
은금의 강산 빛내여가세	리정술	리상룡	1978
은혜로운 그 품에 안겨 자랐네	전병구	최성환	1978
은혜로운 해빛 아래 금나락 설레이네	리혁수	김병화	1978
이보다 더 큰 행복 세상에 없네	홍기풍	김연규	1978
인민은 노래하네 4월의 명절	신순현	박무준	1978
인민은 한마음	한상호	리춘상	1978
인민의 유원지로 꽂피는 대성산	김두일	엄하진	1978
인민이 주인된 행복한 내 나라	배현평	최재선	1978
자동화의 노래 속에 행복넘치네	최준경	리경	1978
자란 높은 인민의 묘향산	전병구	허금종	1978
자력갱생 기치높이 우리는 나간다	리정술	최성환	1978
자력갱생 기치높이 충진군 다그치세	김두일	엄하진	1978
제대군인 그 총각 영웅 탄부 되였네	안호근	설명순	1978
조선의 고향집	안창만	김기홍	1978
주체농사 꽂피여 우리 자랑 넘치네	박호범	최재선	1978
주체의 기치높이 힘차게 앞으로	송찬웅	허금종	1978
주체의 락원에 행복이 꽂혔네	김두일	엄하진	1978
주체의 해빛 넘친 아침의 나라	리 맥	허금종	1978

즐거워라 보람찬 금요로동	한상호	원용봉	1978
지하전초병의 영예	백 하	허금종	1978
청봉의 은하수	리정술	허금종	1978
청춘을 바쳐 내 조국 빛내리	티혁수	김경수	1978
초병은 수령님 안녕을 지켜가네	최준경	리 경	1978
축원의 꽃바다 설레이네	한관호	최재선	1978
충성을 바쳐가는 오직 한마음	배현평	강영범	1978
충성의 마음 담아 꽃비단 짜요	김재화	리정남	1978
충성의 일편단심	최준경	엄하진	1978
충성의 한길에 청춘을 마치자	홍기풍	김기명	1978
탄부의 영예 빛내여가리	림호권	모영일	1978
탐사의 한길에 청춘을 빛내리	홍기풍	윤충남	1978
평양의 밤	백 하	유명천	1978
포구의 저녁노을	백 하	김제선	1978
풍년 벌에 울리는 혼성 2중창	윤두근	리용호	1978
하늘땅에 넘치는 어버이사랑	김재화	유명천	1978
한생을 빛내여가리라	리범수	허금종	1978
행복한 탁원거리	최준경	설명순	1978
간석지에 금물결 설레이네	한찬보	허금종	1979
강기슭에 새땅을 펼치여가네	홍기풍	리상룡	1979
경사로세 인민의 명절	한상호	최재선	1979
공원속의 우리 평양	류민호	송광립	1979
관개의 나라 풍년의 나라	김정호	강기창	1979
군항의 저녁	리범수	설명순	1979
그 누가 보는이 없어도	리경순	성동춘	1979
금수강산에 풍년새 노래하네	한찬보	김제선	1979
내 고향의 가을은 좋아	한찬보	성동춘	1979
내 나라는 탁원의 금수강산	안정기	엄하진	1979
내 나라는 언제나 꽃피는 계절	전병구	허금종	1979
내 나라의 봄	안창만	리정언	1979
내 조국은 수령님 모신 한가경	최준경	엄하진	1979
내 조국은 어때 가나 좋아라	안영혜	라기현	1979
너전사는 행복의 봄씨앗 뿌렷네	박미성	성동춘	1979
노래하세 인민의 내 나라	리영백	윤영환	1979
논머리에 꽂핀 병사의 마음	리덕조	리봉룡	1979
농장벌에 봄가을이 함께 왔네	윤두근	박병국	1971
농장벌의 기계화 부부	류민호	리순호	1979
농장벌의 새봄은 좋아	정혜경	박무준	1979
당을 따라 가는 길에 영광 빛나라	류민호	김윤봉	1979

당을 따라 한마음 변함 없으리	한상호	최재선	1979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리	리범수	설명순	1979
당의 해빛 영원한 행복을 주네	김재화	최재선	1979
당이여 그대 품에 영원히 살리라	김정호	리영숙	1979
동무여 충성의 노래부르자	김웅하	김연규	1979
동해선을 달리는 내 마음 즐겁네	최준경	설명순	1979
동해의 해돋이는 아름다워라	리영백	허금종	1979
탁원의 노래 싣고 보통강은 흐르네	최준경	김광조	1979
만경대 이야기로 잠못드는 밤	최준경	엄하진	1979
만경봉기슭에 맑은 샘 솟아나네	백하	최성환	1979
만경화	안창만	림대식	1979
만수대의 목란꽃	리정술	리정언	1979
만풍년 싣고 달리는 기쁨	윤두근	량영철	1979
모란봉의 봄	한덕수	정세룡	1979
마다가 내 고향	정혜경	림대식	1979
번영하는 내 조국 지켜가리	최준경	설명순	1979
병사는 언제나 전투의 노래부르네	윤두근	리경	1979
빛나라 개선나루터	홍기풍	김기병	1979
빛나라 영광의 낭대여	리정술	허금종	1979
뽕따기 즐거워라	김숙	김동수	1979
사랑의 길우에 눈이 내리네	정서촌	리정언	1979
사랑의 전설 꽂피여 나네	배현평	성동춘	1979
수령님 따르는 오직 한길에	정혜경	유명천	1979
수령님 사랑 넘쳐 집집마다 행복일세	윤두근	김옹호	1979
수령님 사랑 넘친 내 나라	리종률	리옹호	1979
수령님 안녕을 바라는 마음	박미성	성동춘	1979
수령님 오시는 길에 기쁨드리리	리정술	리정언	1979
수령님 해빛아래 새봄이 왔네	주민	김정수	1979
수령님께 드리는 축원의 노래	백현평	유명천	1979
수령님께 아침인사 드리네	리정술	허금종	1979
심장의 노래여 하늘땅에 넘쳐라	전병구	김윤봉	1979
아 나의 조국 수령님 품이여	윤두근	엄하진	1979
아름다운 만경대	정혜경	림대식	1979
어머니 나의 조국	류민호	김기병	1979
어머니 당의 품	김성조	유명천	1979
어머니조국을 나는 사랑해	백수길	박무준	1979
언제나 깨끗한 인민의 마음	리정술	허금종	1979
언제나 어디서나 수령님 우리리	동기춘	리근영	1979
영광의 노래 삼가 드립니다	한상호	김재선	1979

우리 마을 처녀들 농장대학 가네	리종률	리용호	1979
우리 분대장	리범수	설명순	1979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황명성	김동철	1979
우리는 미래에 산다네	김병훈	림태식	1979
우암리는 살기 좋은 탁원이라오	김두일	김옹호	1979
유격구의 새봄	김경호	문성희	1979
은혜로운 조국의 품이여	안정기	김기홍	1979
은혜로운 태양아래 향도의 해발아래	윤두근	리경	1979
인민의 금강산	김재화	성동춘	1979
인민의 행복 신고 고속도로로 달리자	김두일	설명순	1979
장군님 따르는 자욱은 오직 한줄기	안호근	엄하진	1979
전군을 주체사상화하자	리범수	강승용	1979
전사의 가슴은 뜨거웠다네	강혁	량영철	1979
정다운 항구여	박필모	김덕수	1979
정시로 달리자	강혁	강승용	1979
조국이여 빛나라	한찬보	김기홍	1979
조선아 다시 안아보자	최준경	엄하진	1979
주체의 꽃비단 행복의 꽃비단	최준경	리용호	1979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꽃이 피네	김두일	엄하진	1979
찬란한 나의 조국이여	리건구	리정언	1979
처녀들은 귀속말로 속삭이였네	강혁	리용호	1979
천년만년 수령님만 모시고 따르리	조령출	김기명	1979
출강이다 쇠물을 받아내세	황명성	박월빈	1979
충성의 매들은 높이 날으네	리범수	김광조	1979
풍년달 비치는 농장길 좋아라	김숙	리석	1979
한마음 수령님을 위하여	윤두근	설명순	1979
항구의 밤	배현평	강영범	1979
행복한 우리 가정	안호근	설명순	1979
흘러라 압록강	전병구	유명천	1979
10대고지 봉이마다 승리기발 휘날리세	윤두근	리용호	1980
그 언제나 한마음 꽂피워가네	백하	김제선	1980
그대는 나의 조국	동기춘	리근영	1980
금수강산 꽃노래	박필모	전유성	1980
기관사와 철길원 처녀	류민호	박무준	1980
길	리범수	설명순	1980
꽃피는 봉라도	리범수	리봉룡	1980
꽃피는 비단섬	리영백	장지태	1980
꽃피는 청춘은 행복하여라	배현평	리정언	1980
꿈같이 황홀한 창광거리	리범수	설명순	1980

내 고향 산촌마을 살기도 좋아	리 맥	홍순태	1980
내 고향에 봄이 왔네	리종률	설명순	1980
내 나라는 행복의 탁원	홍기풍	박무준	1980
내 안겨사는 영원한 품이여	백수길	박무준	1980
내 조국은 젊어라	김두일	리용호	1980
내 조국의 봄이 좋아 노래하네	최준경	리 경	1980
내가 사는 행복한 마을	동기춘	리근영	1980
내의 평양 정다운 곳이여	김정호	김기홍	1980
노래부르자 우리는 청년분조	김정호	김명희	1980
노래불러 사랑하세요 우리의 평양	윤두근	엄하진	1980
노래하세 황금산 은하리	류민호	리상룡	1980
노을 비낀 구내길로 용해공들 가네	리영백	오창선	1980
농장벌에 종다리 노래하네	정혜경	김건일	1980
농장의 들길에 인사도 정다워라	김정호	리동원	1980
당은 나의 어머니	리정술	성동춘	1980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	리종률	량영철	1980
당의 뜻 꽃피워 기쁨드리리	송찬웅	김기홍	1980
당의 품에 한생을 빛내리	류민호	리춘상	1980
당의 해빛 넘치여 내 조국은 빛나네	윤두근	엄하진	1980
당이 바라는 길 나는 가리라	김재화	성동춘	1980
당이여 그대 이름 부르면	류민호	박무준	1980
당이여 그대는 우리의 기쁨	박미성	김덕수	1980
당중앙의 불빛	리덕조	설명순	1980
동해천리에 해가 솟는다	리정술	유명천	1980
만경대의 달밤	전병구	리정언	1980
만수대에 넘치는 축원의 마음	윤두근	리용호	1980
만풍년의 기계농사 좋아라	홍기풍	모영일	1980
명사수꽃을 달고 중대가 돌아와요	김준익	설명순	1980
명승의 나라 사랑하세요	최준경	리 경	1980
발전소건설장에 불꽃 날리네	박필모	김연규	1980
백두산에 흰눈 내리네	최준경	김광조	1980
병사들이 마을앞을 지날 때	안호근	설명순	1980
빛나라 나의 조국 조선아	최준경	엄하진	1980
뽕따는 마음 비단풀에 꽃피리	홍기풍	윤승진	1980
사변장은 전사를 다시 불러세웠네	황명성	도영섭	1980
사랑의 길우에 목란꽃 피었네	홍기풍	정세룡	1980
사회주의 교육체제 만만세	한상호	오완국	1980
사회주의 내 나라 세상에서 제일 좋네	박 윤	박병국	1980
살기 좋은 내 나라 노래부르네	최원근	윤승진	1980

살기 좋은 락원 개마고원이여	강현세	안혜련	1980
삼지연	안창만	리정언	1980
삼지연 맑은 물에 별들이 내리네	안정기	유명천	1980
설레이이는 파도우에 손풍금소리 울리네	신순현	김정수	1980
송도원은 세계의 명승일세	리범수	리봉룡	1980
수령님 가꾸시는 아름다운 이 강산	리진구	김연규	1980
수령님 모시고 행복 노래부르네	리정술	유명천	1980
수령님 묘시여 빛나는 조국	홍기풀	김기홍외	1980
수령님 사랑속에 만풍년들었네	송찬웅	리정남	1980
수령님 사랑어린 비날론	림호권	리석	1980
수령님 위하여 한복술 마쳐싸우자	심봉원	리송환	1980
수령님 은덕아래 행복한 내조국	윤두근	리용호	1980
수령님 펼쳐주신 설계도 따라	백수길	김기홍	1980
수령님 해빛아래 기술혁명 꽂펴나네	전병구	허금종	1980
수령님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	백하	유명천	1980
아 나의 조국이여	정해경	유명천	1980
아 잊지 못할 강선의 겨울밤이여	김준익	량영철	1980
어버이사랑이 넘치는 초소	강혁	량영철	1980
언제나 당중앙 우리터	한상호	김제선	1980
열싸 좋네 새땅이 늘어나네	박필모	김성렬	1980
영광 빛나라 조선로동당	림호권	김원균	1980
영원한 조선의 봄	최준경	설명준	1980
영원히 당과 함께 우리는 가리라	황명성	박활빈	1980
예가 바로 락원일세	한찬보	리석	1980
오가는 우리 마음 쇠물꽃 피워가요	류민호	오창선	1980
온 나라에 고운 비단무지개 펴리	최원근	홍제명	1980
용해장은 새로 온 처녀	황명성	박활빈	1980
용해장은 언제나 해솟는 바다	최준경	허금종	1980
우리 공장구내에서 꾀끌새 노래하네	리범수	강승웅	1980
우리 당을 받들어 인민은 나가네	안호근	설명준	1980
우리 중대 사관장	황명성	김일모	1980
우리 중대 쌍피리	강혁	박병국	1980
우리네 포구에 노래넘쳐요	리금녀	리영숙	1980
우리는 로동당의 근위대	리정술	유명천	1980
우리는 빈티에서 시작하였네	김두일	리봉룡	1980
우리는 수령님의 군대 당의 혁명군대	김준익	김광조	1980
우리는 청년탄부	윤두근	리봉룡	1980
우리는 행복한 로동가정	홍기풀	전유성	1980
유격구 마을에 밝은기 휘날리네	김응하	리상룡	1980

은혜로운 사랑의 노래	리범수	설명순	1980
은혜로운 품속에 피여 나는 꽃	리정술	리영립	1980
이 땅에 끝없는 사랑의 자욱	한찬보	김정수	1980
이 밤도 당중앙 우리를 봅니다	김두일	손창세	1980
자력갱생 기발 높이 날려라	리건구	리상룡	1980
장자산의 푸른 잣나무	안호근	설명순	1980
저 하늘을 날으리전에	김준익	설명순	1980
전선원호 다그쳐 가세	김두일	리경	1980
정다운 나의 거리	리범수	설명순	1980
정다운 내 고향	리영배	김덕수	1980
정다운 동무들 농장별에 함께 있네	홍기풍	김기명	1980
정다운 저녁길	리정술	허금종	1980
정방차 타고 일하는 기쁨	강혁	리경	1980
조국땅 어디 가나 병사의 고향	최준경	리경	1980
조국의 노래	한상호	김윤봉	1980
조선로동당 만세	안호근	엄하진	1980
조선로동당 영광의 기치여	김재화	김윤봉	1980
주체농법 만세소리 하늘땅에 울려가네	리종률	리용호	1980
채탄기야 돌아라	리종률	박남극	1980
천지의 맑은 물	최원근	김기명	1980
칠산봉에 소돌풍년노래 울리네	강혁	엄하진	1980
청춘과원에 사파꽃 피었네	최준경	김정수	1980
초소의 아들에게	김두일	엄하진	1980
축원의 노래	박영순	김창룡	1980
출항의 배고동 울리네	안창만	안시형	1980
충성의 길에 별처럼 빛나리	배현평	리경언	1980
친애하는 그 품에서 꽂피는 청산리	김두일	리봉룡	1980
평양의 아침	강혁	박활빈	1980
한마음 당을 받들어가리	전병구	강영범	1980
한마음 수령님 우러러	정혜경	박무준	1980
해빛님친 나의 평양	백수길	김연규	1980
해솟는 아침의 나라	리 맥	성동춘	1980
향도의 해발아래 회망찬 내 나라	리범수	엄하진	1980
흘리라 대동강	조령출	안성현	1980
10대고지는 우리의 희망봉	신순현	리정남	1981
2선남포의 노래	백인준	성동춘	1981
4월의 밤	윤두근	량영철	1981
7년대의 나팔소리	리종률	박병국	1981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	윤두근	설명순	1981

고마워타 나를 키운 사랑이여	최준경	리용호	1981
그날의 풍금소리	신순현	김영신	1981
기계화의 노래 속에 풍년기쁨 넘치네	박미성	김제선	1981
꽃피는 묘향산	윤석범	리상룡	1981
꽃피는 사랑의 등대섬	황명성	량영철	1981
나의 영원한 품이여	박미성	정진옥	1981
네거리초병의 영예	김경춘	김기주	1981
노래불러 자랑하세 우리의 묘향산	티범수	엄하진	1981
노래하자 나의 조국 비약하는 나라	김두일	김옹호	1981
높이 들어라 “트, 퉤”의 기발	집체	김덕수	1981
당은 우리의 행복	김옹하	김연규	1981
도천마을너인들 너전사 따라가네	황명성	리용호	1981
또다시 비약의 나래 펼치자	박필모	김기홍	1981
마음속엔 언제나 수령님 생각	윤두근	손창세	1981
명승의 묘향산	티범수	리범	1981
명승의 상원동을 찾아서	류민호	김제선	1981
묘향산 만폭동은 결경이로세	김재화	최재선	1981
묘향산 하도 좋아 온갖 새 노래하네	림호련	정세룡	1981
묘향산의 등산길 좋아라	티범수	박병국	1981
마치자 충성의 한표	박필모	전유성	1981
박아마이 광산마을 찾아가네	강혁	박병국	1981
변치 않을 우리의 우정	전병구	김창룡	1981
병사들의 그 마음 고마워	윤두근	엄하진	1981
병사의 배낭	박윤	김옹호	1981
보람찬 하루	김숙	최승민	1981
보통강의 불벼들	김경기	김광조	1981
봄빛 푸른 들에 나서면	송찬웅	김기홍	1981
뿔려불가답운동의 노래	신순현	김동수	1981
사랑의 창광거리	리재린	송광립	1981
사랑의 해빛	한상호	최재선	1981
새 삶이 꽂펴난곳	박윤	엄하진	1981
세우자 우리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백수길	오택종	1981
수령님 한품에 꽂된 내 나라	윤두근	량영철	1981
어머니 사랑이 나에게 있어	배현평	유명천	1981
얼싸 좋네 만풍경 노래하세	윤두근	엄하진	1981
영원한 불빛	동기춘	리상룡	1981
영원한 사랑의 손길	리정술	허금종	1981
영원한 사랑의 품	동기춘	리근영	1981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리정술	리학범	1981

오솔길에서 만나는 두 상동병	현채련	박월빈	1981
우리 평양 노래하세	한상호	김제선	1981
우리는 당의 보위자	리재린	김기주	1981
우리는 당의 전사	류민호	김연규	1981
우리는 만년대제 갑문 세우네	김두일	리광오	1981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리 맥	김윤봉	1981
온혜로운 해빛아래 꽃피는 행복	리영백	김덕수	1981
이 강산은 그 어嗟나 절승일세	리재린	김기주의	1981
이 땅에 밤은 깊어도	리재린	김기주	1981
자연개조 꽃을 피워 공산주의 앞당기세	황명성	김광조	1981
전투준비 끝	김준익	김 철	1981
정다운 나의 평양	왕경학	엄하진	1981
정다운 품	배현평	김제선	1981
주체의 위업에 청춘을 마치리	김경훈	설명순	1981
중대 나란히	김경기	김동철	1981
처녀들의 가슴은 설레웠다네	윤두근	김일모	1981
천하절승 묘향산	홍기풍	유명천	1981
청봉의 글발	전병구	허금종	1981
평양의 숲속에 새들이 노래하네	한 호	리상통	1981
풍년 물결 수 놓아가리라	왕경학	엄하진	1981
풍년별 설레이이는 가을밤이 좋아	최준경	리용호	1981
하늘아래 김매터 왔네	리종률	강승웅	1981
한없이 소중한 품	한찬보	박무준	1981
해와 별 빛나는 강산	배현평	김제선	1981
해와 별 빛나는 나의 조국이며	리재린	집 채	1981
항도의 별을 따라 우리는 가네	전병구	유명천	1981
혁명위업에 빛나는 한생을 바치리라	신순현	박영진	1981

## (2) 영화음악

곡명	작사자	작곡자	작곡년도
광복의 봄을 기다리며	백인준	김영도	1949
다시 찾은 내 고향	백인준	김영도	1949
소년 빨치산의 노래	김학연	리전우	1951
달려라 “소년호”	김학연	리전우	1958
바다의 노래	지재룡	라화일	1958
나의 삼륜차	정 한	김린옥	1959
공장은 나의 대학 청춘의 고향	전동우	김찬범	1961
귀향의 노래	정문향	김복윤	1961
꽃피는 시절	변병순	김린옥	1961

노래도 유쾌히 춤을 추세	윤기근	김찬범	1961
사회주의 탁원일세	김재화	리정언	1962
나의 노래	변병순	김찬범	1963
박타기 노래	집체	홍수일외	1963
풍년드는 두메산골	김린육	김린육	1963
그리운 동무야	조령출	김명록	1964
나의 별	백인준	김찬범	1964
나의 종달아	리호일	김길학	1964
날으자 매들아	리호근	김지현	1964
내 고향의 자랑	최경선	리혁선	1964
내 몰라타 이내 마음	백인준	김찬범	1964
달아달아 밝은 달아	리지용	박민혁	1964
드락또르소리 울리네	리호일	김길학	1964
물맑은 시내가	신운호	김지현	1964
미래를 향하여	백인준	김린육	1964
밀영의 밤	집체	김길학	1964
복수자의 노래	리호일	리학범	1964
승리한 전선길에서	성기형	리혁선	1964
어머니 품	신운호	김지현	1964
우리는 빨동청년	집체	김길학	1964
우리는 조국으로 간다	집체	김길학	1964
우리의 새동산	변병순	남동림	1964
우정의 노래	리호일	김길학	1964
인민 교원	한상운	김길학	1964
정다운 탁원이여	집체	김영도	1964
조국별 더불어 영생하리라	백인준	김찬범	1964
조국으로 가는 길	집체	김길학	1964
천리마 선구자의 노래	리호일	김길학	1964
하루도 아니라네 한달도 아니라네	조령출	김명록	1964
해빛밝은 내 나라	집체	김린육	1964
우리는 행복해요	김학연	김길학	1964
고지에서의 노래	신상호	박민혁	1965
그리운 고향	변병순	김린육	1965
복수의 노래	리호일	김린육	1965
숙영의 밤	김병만	김지현	1965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최로사	박용필	1965
우리는 조국의 수호자	김병만	김지현	1965
인민의 행복 지켜	리장송	박용필	1965
정다운 동산이여	박원철	김길학	1965

정다워라 나의 일터여	최로사	박용필	1965
청춘의 길	변병순	박용필	1965
행군가	김병만	김지현	1965
행복의 노래	변병순	박용필	1965
희망의 노래 올려가라	박원철	김길학	1965
고향길	김세륜	집체	1966
광복의 길 찾는다	리호일	김길학	1966
꽃피는 내 희망	원석파	박용필	1966
빨찌산은 강을 건너다	리호일	김길학	1966
살기 좋은 내 고향	변병순	김린옥	1966
새별	최로사	김길학	1966
속이의 노래	안춘옥	박민혁	1966
어서 오시라 행복의 무대	김세륜	김린옥	1966
우리들은 영랑한 차장	김원영	김찬범	1966
젊은 기관사	변병순	리학범	1966
경작성 높은 인민반원들	김주명	심철구	1967
고지의 용사들	변병순	박용필	1967
고향땅 경든 품에 영원하리라	원석파	박용필	1967
남매의 노래	박원철	김지현	1967
민호의 노래	백인준	김길학	1967
순영의 노래	백인준	김길학	1967
여기는 내 고향	변병순	박용필	1967
우리도 후방에서 총을 잡았다	변병순	박용필	1967
이 바다에 살자야	김정태	박용필	1967
이 청춘 바치리	백인준	김길학	1967
적구의 밤	리호근	김지현	1967
전우여 전격의 길 다그쳐가자	박원철	김지현	1967
혁명의 길을 따라	김정태	박용필	1967
화선천리길	고호일	김지현	1967
경비대 행진곡	집체	김길학	1968
금수강산 내 조국	집체	김찬범	1968
기쁨과 행복은 끝이 없어요	리때	박용필	1968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백인준	성동춘	1968
나어린 꽃송이	백인준	성동춘	1968
내 나라 한없이 좋네	리호일	리학범	1968
너전사의 노래	백인준	김찬범의	1968
만풍년들었네	한명천	김길학	1968
미제원쑤에게 복수의 죽음을	집체	김찬범	1968
밀림속의 맹세	집체	김린옥	1968

버섯마는 처녀	집 체	김영도	1968
병사는 그 어데서나 싸워이기네	집 체	김린옥	1968
비판받은 두동무	집 체	김린옥	1968
빨지산 너전사들 노래부르네	집 체	김린옥	1968
새길우에 다지는 맹세	백인준	김찬범외	1968
승리의 연병장에서 또다시 만나리	주동일	박민혁	1968
오직 한마음	백인준	김영도	1968
우등불가에서	민 일	김지현	1968
우리들이 가는 길	집 체	김찬범	1968
원쑤 미제 남김없이 쓸어버리자	주동일	박민혁	1968
인민의 충복된 그 영예 빛내리라	리동춘	심철구	1968
일편단심 장군님께 충성하리라	집 체	김린옥	1968
장군님이 그리워	집 체	김영도	1968
정다운 나의 공장	리동춘	심철구	1968
조국진군의 노래	신상호	박민혁	1968
혁명의 새세대는 자랐네	집 체	심철구	1968
혁명투사 김형직선생	로용렬외	김용빈	1968
혁신의 나날	리 맥	박용필	1968
건설행진곡	리호일	김린옥	1969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백인준	김영도	1969
고향의 소식	민 일	김지현	1969
끌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	백인준	리면상	1969
녀성고사총수의 노래	민 일	김지현	1969
노래하자 금강산	백인준	김영도	1969
답사양공의 노래	집 체	리생빈	1969
동무여 잊지 말자	백인준	김길학	1969
따사로운 그 해빛 가슴에 안고	집 체	박용필	1969
보람찬 길	한명천	김린옥	1969
보위자의 노래	정인순	박민혁	1969
북쪽하늘 우리리	백인준	리면상	1969
빛나는 태양	백인준	김길학	1969
사과풍년	백인준	김영도	1969
사회주의 내 나라	백인준	김길학	1969
사회주의 락원 지켜 용맹 멀치리	정인순	박민혁	1969
수령님 품에 안겨	리경찬	리근삼	1969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렵니다	집 체	전창일	1969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집 체	남동립	1969
승리한 들판의 노래	김홍익	박용필	1969
신호공처녀	리호일	김린옥	1969

어버이 품	백인준	김길학	1969
어버이 사랑속에서	집체	김용빈	1969
영광 빛나라 우리의 평양	백인준	김길학	1969
우리 아기 자라나면	백인준	김영도	1969
우리는 수령님의 행복한 딸들	백인준	김영도	1969
우리는 자랑찬 정찰병	홍개석	김지현	1969
우리의 인민주권 지켜나가자	백인준	박용필	1969
이 행복 노래합니다	리호일	김린옥	1969
일 잘하고 맘씨 고운 금강산처녀들	백인준	김영도	1969
장군님 품에 안겨	민일	라국	1969
전선의 하늘가	민일	김지현	1969
평양 동물원의 노래	리경찬	최신준	1969
험난한 가시덤불 헤쳐가면서	집체	박용필	1969
혁명 위해 몸과 마음 바치렵니다	민일	라국	1969
혁명의 세세대	집체	심철구	1969
희망과 기쁨안고 살아갑니다	집체	박용필	1969
“붉은 기”호 나의 차는 달린다	집체	김린옥	1970
가을같이 홍겨워라	박영환	전창일	1970
그 품에서 천만년 살리라	집체	박민혁	1970
기어이 내 조국 지키여가리	김홍익	김린옥	1970
꽃피는 일터	박영환	전창일	1970
꽃피는 창성	김동전	차승진	1970
녀자뜨락또르운전사의 노래	한명천	심철구	1970
리발사의 노래	백인준	성동춘	1970
정수의 노래	리호근	라국	1970
병아리 키우는 노래	리승환	김찬범	1970
보람찬 우리 일터	리승환	김찬범	1970
보위자의 영예	리재린	라국	1970
복수전의 노래	집체	박민혁	1970
북녘하늘 우러러	신운호	박민혁	1970
분초를 아끼여라 480분	집체	김영도	1970
수령님 다녀가신 청산리	김동전	장영철	1970
수령님의 품속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박영환	전창일	1970
아름다운 거리	김세윤	집체	1970
어머니 내 조국	백인준	김찬범	1970
우리는 너성근로자	백인준	남동림	1970
우리는 자랑찬 기계화 초병	한명천	심철구	1970
은혜로운 해빛아래 살기 좋은 창성	한찬보	리근삼	1970
인민들은 행복을 노래부르네	민일	라국	1970

자랑만 하지 말고 경각성 높이자	김세률	김린옥	1970
장군님 가리키신 길을 따라	김홍익	김린옥	1970
재봉공의 노래	리관용	남동립	1970
적위대 앞으로	리재춘	김린옥	1970
정찰병의 노래	신상호	라국	1970
청춘의 희망 안겨주셨네	박영환	리학범	1970
최후의 승리까지 앞으로	백인준	김린옥	1970
판매원의 노래	한찬보	김찬범	1970
혁신 앞으로	한명천	김길학	1970
협동벌은 청춘의 활무대	한명천	심철구	1970
가공공의 노래	김경희	전창일	1971
간호원의 노래	리일복	박민혁	1971
결전의 싸움터에 아침해 쏟는다	김영준	김지현	1971
경각성을 높이자요	김세률	한시준	1971
군민은 떨쳐나섰다	김세률	한시준	1971
꽃피는 과원	김세률	김영도	1971
녀성적위대원의 노래	박봉학	김린옥	1971
대를 이어 수령님을 보위하리라	김윤봉	박민혁	1971
목란꽃 피였네	김영준	김지현	1971
미래를 키우는 어머니 마음	오영재	박용필	1971
밀림의 청춘은 나래를 펴네	김상주	심철구	1971
보람찬 나의 포구	김정희	김영도	1971
사과 따는 처녀	김상주	김영도	1971
세대는 바뀌여도 과녁은 하나	김세률	한시준	1971
소년근위대원의 노래	김상주	남동립	1971
쇠돌산의 주인이라오	박봉학	김린옥	1971
수령님 가리키신 영광의 길 따라	김상주	심철구	1971
수령님 다녀가신 산정길	박봉학	김린옥	1971
수령님 다녀가신 포구입니다	박영환	전창일	1971
승리의 그날까지 굳게 싸우리	김상주	남동립	1971
아동단원 굳은 맹세 지켜합니다	차계옥	한시준	1971
어버이 그 사랑 태양에 비기라	정인순	박민혁	1971
우리 영광 우리 행복 끌이 없어요	김정태	박용필	1971
우리는 장군님의 나아린 근위대	안성갑	라국	1971
우리의 인민군대 노래부르자	김세률	한시준	1971
이 한가정 불게 꾸며 충성 다하리	박봉학	김린옥	1971
이 한몸 다바쳐	민일	김지현	1971
장군님의 꿈속에 안기렵니다	김영준	김지현	1971
전사들을 찾아서	김세률	한시준	1971

지덕체 다져가요	김정태	박용필	1971
진격 앞으로	리일복	박민혁	1971
청춘의 대오는 나간다	김상주	심철구	1971
태백산에 새봄은 오리라	정인순	박민혁	1971
혁명의 불은 꽃 피워갑니다	김룡서외	한시준	1971
혁명의 후비대로 우리 자라네	김원호	남동립	1971
강산에 넘치는 어버이 사랑	박영환	전창일	1972
근거지의 봄	김동전	한시준	1972
김일성원수님 품에 우리는 행복하여라	장례순	김찬범	1972
파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김동전	한시준	1972
탁원의 강반에서	김승구	김린옥	1972
털차판매원의 노래	전동우	박용필	1972
맹세의 노래	우림호	라국	1972
미제를 치자	김승구	김린옥	1972
밝은 세상 그려보며 떠나갑니다	김동전	한시준	1972
빨찌 산대원들 잘못이루네	김동전	한시준	1972
사랑의 물결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김상주	심철구	1972
사령부를 보위하여 앞으로	김동전	전창일	1972
수령님 부름따라 전진 앞으로	박영환	전창일	1972
수령님 첫 삽을 손수 뜨시여	김승구	김린옥	1972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옵니다	신운호	라국	1972
오누이 상봉	김승구	김린옥	1972
온실처녀들의 노래	김세윤	박용필	1972
우리는 나간다 혁신의 길로	전금옥	심철구	1972
우정의 노래	전금옥	심철구	1972
이 기쁨이 행복은 한없습니다	최영진	리석	1972
이 행복 지켜가리라	신운호	박민혁	1972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하리라	신운호	박민혁	1972
자애로운 수령님 품 속에서	김동전	남동립	1972
장군님 주신 땅에 새봄이 왔네	최영진	리석	1972
장군님께 충성다해 싸워가거라	김동전	한시준	1972
장군님의 높으신 뜻 심어가리라	김동전	한시준	1972
장군님의 높은 뜻 배워갑시다	김동전	한시준	1972
장군님의 품을 찾아서	김상주	심철구	1972
장군별의 노래	김희준	김린옥	1972
조국의 꽃으로붉게 피리라	리호근	김린옥	1972
충성을 다지며	장례순	김찬범	1972
충성의 붉은 마음 마쳐가리라	전동우	박용필	1972
평양이며 영원히 번영하여라	우림호	라국	1972

혁명의 후비대로 자라납니다	최영진	리 셜	1972
가경혁명화의 노래	전동우	라 국	1973
간호원 우리들도 싸우는 전사	전동우	김찬범	1973
동무여 이 행복 노래부르자	김동전	박용필	1973
복수의 걸로	리호근	라 국	1973
사회주의 생활양식 세워갑시다	김동전	박용필	1973
석류꽃의 노래	전동우	라 국	1973
수령님 품속에서	전동우	김찬범	1973
수령님의 그 말씀 새기여가네	전동우	한시준	1973
수령님의 그 은덕에 보답하리라	전동우	한시준	1973
어버이 사랑	전동우	김찬범	1973
우리의 청춘을 빛내여가리	김동전	박용필	1973
이 한목숨 다마쳐 싸워가리라	집 체	박민혁	1973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이여	리호근	라 국	1973
장군님의 품을 찾아	리호근	라 국	1973
청년들아 우리는 조국의 미래	백인준	박민혁	1973
혁명 위해 이 한몸 마쳐가리	전동우	김찬범	1973
그 품속에서 언제나 행복하여라	김순석	김영도	1974
그물을 뜨세나	백인준	김길학	1974
기술혁신 앞으로	전동우	김길학	1974
기적소리 울려라	전병구	김길학	1974
꿈엔들 잊을소냐 갈라진 혈육	백인준	김길학	1974
대를 이어 총성을 마쳐갑니다	전동우	김길학	1974
맵시있는 일통품을 더 많이 만드세	전동우	김린옥	1974
붉고 붉은 총성을 마쳐가리라	김순석	박용필	1974
새세대의 보람안고	한형수	전창일	1974
세동서의 노래	전동우	라 국	1974
속도전의 기세높이 달려나가네	전동우	김영도	1974
수령님 부름따라 만풍년 이룩해가자	김순석	남동림	1974
수령님 은덕에 만풍년 들었네	전동우	김영도	1974
수송전선 앞으로	전병구	김길학	1974
아버지의 축복	백인준	리학범	1974
여기서 내 청춘 꽂피워가리	김순석	박용필	1974
영광의 내 나라 목숨으로 지키자	전동우	라 국	1974
우리는 수령님의 결사대	전동우	김길학	1974
우리모두 집집승 걸러가세나	전병구	박용필	1974
일당백의 용맹 떨치며	남철훈	김지현	1974
장군님의 품으로 어서들 가자	정인순	박민혁	1974
정다운 거리	전동우	남동림	1974

즐거운 일터여	전동우	김길학	1974
청춘의 노래	전동우	김린옥	1974
초소의 밤	엄삼성	김찬범	1974
충성의 한길에 병사는 섰네	남철훈	김지현	1974
탄전의 밤	전동우	김길학	1974
한없이 뜨거워라 어버이 사랑	김순석	김영도	1974
혁명의 북소리에 발맞춰가자	안부홍	김지현	1974
혁명의 새세대를 안고가리라	정인순	박민혁	1974
호수를 만드세	김순석	박용필	1974
날마다 새 혁신의 꽃을 피워요	리광근	라국	1975
다시 만난 전우	신태호	라국	1975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해가리라	전동우	박용필	1975
뜨락또로운전사의 노래	전동우	김영도	1975
만풍년의 가을을 수놓아가리라	전동우	김영도	1975
벼가을 하리 가세	전동우	한시준	1975
불타는 충성 다마쳐 싸워가리라	신태호	한시준	1975
선전원의 노래	전동우	김린옥	1975
수령님 따르는 한마음	전동우	김영도	1975
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에	전동우	김영도	1975
수령님 바라시는 한길우에서	전동우	김린옥	1975
수령님의 높은 뜻 꽂피우렵니다	전동우	김찬범	1975
수차야 돌아라	전동우	한시준	1975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전동우	김찬범	1975
영양단지 내세나	전동우	박용필	1975
우리모두 생산문화 꽂피워가세	장광남	라국	1975
우리의 자랑 공민된 자랑 높아만 가요	전동우	김찬범	1975
울려가라 사랑의 기적소리여	송봉렬	김영도	1975
자애로운 어버이 사랑	송봉렬	김영도	1975
장군님만 믿고 삽니다	전동우	한시준	1975
태양을 따르는 붉은 한마음	전동우	박용필	1975
그 사랑에 목에여 눈물집니다	전동우	김영도	1976
그 품속에 우리 행복 꽂혔습니다	전동우	김길학	1976
기계화의 새시대는 꽂피여나네	김찬범	김찬범	1976
김을 매세나	송찬웅	김길학	1976
꽃피는 지상탁원 꾸려보세나	전동우	라국	1976
나는야 기계화초병	전동우	한시준	1976
녀성무장대의 노래	김동전	김길학	1976
녀전사는 싸우렵니다	김동전	김길학	1976
달려가라 나의 뜨락또르	김찬범	김찬범	1976

대지와 더불어 길이 살리라	전동우	박용필	1976
땅크병의 노래	집체	박민혁	1976
보람찬 청춘을 바쳐가리라	전동우	김지현	1976
빛나는 청춘을 바쳐가리라	동기춘	김길학	1976
사랑하는 고향아	김동전	김길학	1976
수령님 한품속에 길이 살리라	전동우	라국	1976
수령님 해빛아래 꽃피는 두메산촌	전동우	김영도	1976
어버이 사랑은 끝없습니다	동기춘	김길학	1976
어버이 십리를 덜어드리리	주정웅	박용필	1976
오늘은 당원으로 자랐습니다	리호근	남동립	1976
온 세상에 빛나는 공업의 나라	동기춘	김길학	1976
우리는 대자연의 힘찬 정복자	전동우	김린옥	1976
우리는 일당백 용감한 해병들	김윤봉	박민혁	1976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김찬범	김찬범	1976
이 땅에 만풍년의 봄이 왔네	전동우	김영도	1976
이 한길에 영원한 행복 있어라	전동우	김길학	1976
인민은 충성을 노래합니다	리호근	남동립	1976
인수원의 자랑	전동우	김길학	1976
적후의 밤	김동전	김길학	1976
조국의 바다를 지켜가리라	김윤봉	박민혁	1976
주체농법 이 땅우에 꽂피워 간다네	주정웅	박용필	1976
주체농사 꽂피워 풍년들지요	전동우	박용필	1976
충성을 가져가네	김두일	라국	1976
통일의 널원	전동우	김린옥	1976
한없이 따사론 어버이 사랑	주정웅	김영도	1976
행복의 창가에서 다시 만났네	전동우	김린옥	1976
혁명의 한길에 둠마쳐가리라	리호근	김영도	1976
“지원”의 높은 뜻 이어가시며	백인준	김길학	1977
꺽이지 않는다 혁명의 결개	백인준	김길학	1977
시련의 언덕을 헤쳐가리	장례순	김린옥	1977
이 길에 청춘을 바쳐가리라	김봉철	라국	1977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	리춘구	김린옥	1977
장군님을 따르는 한마음 안고	오진홍	남동립	1977
천사의 굳은 맹세 변함 있으랴	전동우	김영도	1977
조선을 배우자	백인준	김길학	1977
크나큰 그 믿음 가슴에 안고	김봉철	라국	1977
한많은 사연을 물결에 신고	백인준	김길학	1977
협동별에 새봄이 왔네	장례순	김린옥	1977
간호원의 마음 뜨겁네	안부홍	박민혁	1978

고요한 밤이여	백인준	리학범	1978
관병은 한마음	안부홍	한시준	1978
기어이 장군님께 기쁨드리리	신태호	라국	1978
노래부르자 인민의 유원지	김세륜	김길학	1978
둘러라 도리깨	전동우	한시준	1978
류별공의 이 영예 끝이 없더라	전동우	김영도	1978
물방아야 돌아라 어서 짧아라	전동우	한시준	1978
병사의 의모는 부대의 얼굴	김산진	한시준	1978
사랑하는 조국산천 어머니품아	백인준	남동립	1978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백인준	한시준	1978
서로 돋고 이끄는 마음	주정웅	남동립	1978
수령님의 높으신 뜻 꽂피워가세	전동우	라국	1978
승리의 그날은 오리라	리호근	김지현	1978
어서 오시라 대성산 유원지	김세륜	김길학	1978
어이하여 대답없는가	리호근	김선일	1979
우리는 기계화가정	주정웅	전창일	1978
우리는 썩씩한 소년분견대	김룡필	한시준	1978
웃음꽃 뻘네	리호근	김전일	1978
이 한몸 다마쳐 싸워가리라	김룡필	라국	1978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백인준	리학범	1978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	백인준	한시준	1978
장군님을 우리리	전동우	한시준	1978
전사의 어머니	리호근	김전일	1978
전우의 노래	안부홍	김전일	1978
정다운 초원이 나는야 좋아	전동우	김영도	1978
조국 위해 다진 맹세 지켜가리라	안부홍	박민혁	1978
천리타 배길에 비껴진 강산	리호근	김지현	1978
체육전사의 노래	전동우	전창일	1978
축포가 오른다	리호근	김지현	1978
충성의 한길을 빛내여가지	전학범	라국	1978
한방울의 연유라도 아껴쓰세나	전학범	라국	1978
한알의 닭알이라도	채풍기	한시준	1978
화선악기 좋구나	리호근	김지현	1978
그 누가 구원하랴	백인준	리학범	1979
그날의 희망안고 살아가리라	김세륜	라국	1979
기쁨의 노래안고 함께 가리라	전동우	김영도	1979
나라 위해 한목숨 마치였건만	백인준	리학범	1979
나라를 지키려는 장부의 마음	백인준	리학범	1979
나라재산 아껴가는 마음이라네	최희건	김지현	1979

떨어져 살수 없는 하나의 혈육  
 모두다 학교일 도와가자요  
 병사의 훈련길  
 보람찬 초소가 여기 있어라  
 우리는 일당백 너성고사포수  
 우리의 초소는 이름없어도  
 제대한 병사들 새 전선으로  
 충성의 꽃으로 영원하리라  
 꾀 끓는 이 한몸 바쳐가리라  
 행복의 탁원을 지켜가자요  
 혁명의 불은 꽃 활짝 피여요  
 혁명의 한길로 우리는 가네  
 날염공의 그 마음 꽃으로 피네  
 내 나라는 인민의 탁원  
 내 나라는 한가정  
 다시마 때는 처녀들  
 대를 이어 장군님 높이 모시리  
 동지애의 노래  
 혼민가  
 로동계급 이 영예 빛내여가리  
 리별가  
 병사의 가슴속엔 조국이 있네  
 붉게 피는 이 마음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사랑가  
 산촌의 밤  
 세월은 흘러가도  
 수매하자요  
 아름다운 내 나라  
 아름다운 송도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풀 그리워  
 우리 군대 우리 인민 화목하여라  
 장군님 따라가는 이 길에  
 전사의 녘원  
 정다워라 우리 거리여  
 정든 일터여 너와 함께

김세륜	라 국	1979
리호근	서정전	1979
리상우	라 국	1979
변홍영	조재선	1979
리호근	라 국	1979
전동우	김지현	1979
백인준	김길학	1979
리호근	라 국	1979
전동우	김지현	1979
김룡필	김지현	1979
리호근	박용필	1979
리호근	라 국	1979
주정웅	라 국	1980
리종률	엄하진	1980
리호근	박용필	1980
최희건	박용필	1980
최희건	박민혁	1980
리종순	성동춘	1980
백인준	티 셜	1980
류민호	김명희	1980
백인준	성동춘	1980
최희건	고수영	1980
전동우	김전일	1980
최희건	김전일	1980
백인준	성동춘	1980
백인준	티학범	1980
최희건	한시준	1980
최희건	서정전	1980
리종률	엄하진	1980
리종률	티봉통	1980
전동우	박용필	1980
최희건	한시준	1980
최희건	한시준	1980
최희건	박민혁	1980
백인준	티학범	1980
주정웅	고수영	1980
주정웅	라 국	1980

## 2. 창작 기악곡 목록

## (1) 1945년 8월에서 1950년 6월 사이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향토	교향시
마다의 건설	교향조곡
춘향	서곡
농촌의 봄	관현악
농악에 의한 조선륜무곡	춤곡
민요조곡	조곡
가요련곡	관현악
군대 행진곡	취주악
청년 행진곡	취주악
산으로 바다로 가자	취주악
안방	가야금 산조
해금 산조	해금 산조
암록강	교성곡
평화옹호기치 높이 들고	교성곡
력사의 성산	교성곡

## (2)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 사이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승리를 향하여	교향시
승리	교향시
승리의 거류	관현악
보리타작	관현악
근위기치 앞으로	취주악
전차 행진곡	취주악
조선은 싸운다	교성곡
보천보의 화불	교성곡
조국의 고지	교성곡
백두산	교성곡

## (3) 1953년 7월에서 1961년 9월 사이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관현악과 합창
오 눈보라 눈보라	관현악과 합창
오직 수령이 부르는 길로 당이 가리키는 길로	교성곡

열두 삼천리 벌	교성곡
승리자의 노래	교성곡
아 나의 조국	교성곡
평화통일의 노래	교성곡
바다의 노래	교성곡
강호영영웅	교성곡
조국을 위하여	교향시
향토	교향시
행복	교향시
빛나는 전통	교향시
혁명의 불길	교향시
항거의 불길	교향시
굴진공	바이올린 협주곡
보천보의 화불	민족기 악곡
첫 봉화	민족기 악곡
황금벌	민족기 악곡
새날의 기쁨	대피리 협주곡
협동마을의 경사	피리 협주곡
초소의 불	단소 독주곡
지상락원	무용곡
물동이춤	무용곡
장고춤	무용곡
우리는 수령의 전사	취주악
천리마전군	취주악
구국투쟁가	취주악
만경대	원무곡
붉게 피는 사람들	원무곡
파도치는 황금벌	원무곡
새생활의 길	취주악
빛나는 승리	취주악
새 고지를 향하여	취주악

## (4) 1961년 9월에서 1966년 10월 사이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혁명을 위하여	관현악과 합창
천리마전군	관현악과 합창
어부의 노래	관현악과 합창
매노래	관현악과 합창
전설의 노래	관현악과 합창

류별부의 노래	관현악과 합창
영광의 길	교성곡
노호하라 남해바다여	교성곡
로동당찬가	교성곡
우리는 당의 군대	교성곡
백두산	교향곡
광복의 해를	교향곡
소교향곡	교향곡
제 1 교향곡	교향곡
제 2 교향곡	교향곡
경축서곡	서곡
민요조곡	조곡
돈돌라리	조곡
원포귀범	조곡
벌목부의 노래	조곡
방아간에서	조곡
풍구마령	조곡
만풍년	첼로합주
우리는 행복해요	마이올린 독주곡
아름다운 고향	마이올린 독주곡
동해의 푸른물결	관현악
환영곡	취주악
승리자의 행진	취주악
붉은기 중대 행진곡	취주악
사회주의로동청년행진곡	취주악
수도의 아침	원무곡
희망	원무곡
가마마차달린다	경음악
동일렬차달린다	경음악
손풍금수 왔네	경음악
3천만의 념원을 안고	교향곡
경축	민족관현악
경축서곡	민족관현악
그날은 오리라	민족관현악
노한 남해바다	저대협주곡
고난의 행군	무용곡
빼꽃새와 처녀	무용곡
3인무	무용곡

(5) 1966년 10월에서 1970년 11월 사이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세상에 부럽없어라	중주곡
눈이 내린다	중주곡
광복의 길 찾는다	중주곡
창산별에 풍년이 왔네	관현악
내 고향의 정든 집	관현악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피아노 독주곡
빨찌 산의 노래	바이올린 독주곡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첼로 독주곡
만경대의 봄	장세남 독주곡
자유가	민족기악중주곡
조국의 진달래	민족현악합주
맑은 아침의 나라	민족관현악
은하수 강반에서	민족관현악
남산의 푸른 소나무	취주악
봉화산 기슭	취주악
포평나루터	취주악
눈이 내린다	무용곡
조국의 진달래	무용곡
사과풍년	무용곡

#### (6) 1970년대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괴마다	교향곡
문경고개	관현악
충성의 마음	관현악
아리랑	관현악
도라지	관현악
조선은 하나다	피아노 협주곡
사향가	바이올린 협주곡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중주곡
일평단십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중주곡
그네뛰는 처녀	중주곡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간다네	중주곡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중주곡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중주곡
꽃피는 이 봄날에	중주곡
혁명가요련곡	장세남 독주곡
풀년든 금강마을	장세남 독주곡

초소의 봄	가야금 독주곡
키춤	무용곡
새봄	무용곡
강선의 노을	무용곡

### 3. 창작 국음악 목록

#### (1) 1945년 8월에서 1950년 6월 사이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춘향전	가극
심청전	가극
견우적녀	가극
꽃신	가극
춘향전	창극
홍부전	창극
장화홍련전	창극
계월향	창극

#### (2)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 사이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우물가에서	가극
앞마을 뒤마을	가극
진격의 노래	가극
노래부르며 앞으로	경가극
파종의 노래	경가극
모내기 전선	경가극
진달래	경가극
즐거운 마을	경가극
리순신장군	창극

#### (3) 1953년 7월에서 1961년 9월 사이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밀림아 이야기하라	가극
조선의 어머니	가극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가극
황해의 노래	창극
강건너 마을에서 새 노래 들려온다	창극
배뱅이	창극
장화홍련전	창극
선화공주	창극

## (4) 1961년 9월에서 1966년 10월 사이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가극
바다의 불사조	가극
바다의 처녀	가극
해바라기	가극
무궁화꽃수전	민족가극
너성혁명가	민족가극
붉게 피는 꽃	민족가극
춘향전	민족가극

## (5) 1966년 10월에서 1970년 11월 사이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선희	가극
밀림의 역사	가극
태양을 따라서	가극
해빛을 안고	민족가극
오직 한길로	민족가극
금강산 팔선너	민족가극

## (6) 1970년 이후에 만들어진 곡들

곡명	종별
괴바다(1971년)	혁명가극
꽃파는 소녀(1972년)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1974년)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년)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1971년)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1973년)	혁명가극
청춘파원(1974년)	혁명가극
남강마을 너성들(1973년)	혁명가극
연풍호(1973년)	가극
온혜로운 해빛아래(1972년)	가극
두만강반의 아침노을(1974년)	혁명가극

## 4. 주요 연주 단체 목록

단체	창단년도	주요연주곡목	비고
중앙교향악단	1946년 8월	관현악곡, 합창곡 등	
국립교향악단	1947년	교성곡, 교향곡 등	중앙교향악단이 개편

국립합창단	1947년	무반주합창, 교성곡 등	중앙교향악단이 개편
북조선 가극단	1947년 5월	전우직녀, 심청전 등	
조선고전악연구소	1947년 4월	춘향전, 심청전 등	연구사업과 연주활동을 겸함
국립예술극장	1948년 12월	춘향전, 꽃신 등	이전의 연주 단체를 통합. 1956년 이후 가극을 전문적으로 창작 연주.
조선인민군협주단	1947년 4월	압록강 등	전쟁 중 서울에서 여러 차례 공연
국립고전예술극장	1952년 11월	창극 및 각종 음악들	1956년 국립민족예술극장으로 개칭
국립교향악단	1956년 4월	교향악과 합창 전문	국립예술극장에서 갈라져 나옴
국립가무단	1965년 11월	음악무용공연 전문	
국립가극극장	1965년	가극 전문	국립예술극장이 개편
국립민족가극극장	1965년	민족가극 전문	국립예술극장이 개편
만수대 예술단	1969년 9월	인민성과 사실주의에 입각한 작품연주 전문	북한의 주제적 문예사상을 실현키 위해 만든 단체
국립민족가극극장	1969년 4월	가극 전문	국립민족가극극장과 국립가극극장이 통합
영화음악단	1969년	영화음악전문	1970년에 국립교향악단이 여기로 통합
피바다가극단	1971년 7월	혁명가극전문	국립가무단과 민족가극극장이 통합
평양예술단	1972년	가극전문	후에 모란봉예술단으로 개칭

### 5. 1948년에서 1955년 사이에 연주된 주요 작품들

#### (1) 가극

작품명	작곡자	지휘자	연출자	공연장소	공연년도
행복의 길	리면상	우천선	림하순	국립가극장	1948년 2월
춘향	리면상	박광우	라옹	국립가극장	1948년 5월
양산촌	한시형외	우천선	탁진	국립가극장	1948년 8월
온달	황학근	박광우	주영섭	국립예술극장	1948년 12월
카르멘	비제	김기덕	리석진	국립예술극장	1949년 5월
인민유격대	김순남	박광우	리석진	국립예술극장	1949년 8월
꽃신	리면상	박광우외	탁진	국립예술극장	1949년 12월
눈내리는 밤	황학근	김기덕	리서향외	국립예술극장	1950년 2월
마을의 경사	한시형	박근상	김영희	국립예술극장	1950년 6월
전격의 노래	윤승진	박광우	김영희	국립예술극장	1952년
우물가에서	리면상	홍승학	우철선	모란봉지하극장	1952년
앞마을뒷마을	리면상	박근상	우철선	모란봉지하극장	1952년

청년근위대	메이 뚜스	박광우	리서 향	국립 예술극장	1952년
노래부르며 앞으로	짐 체	박근상	리문섭	국립 예술극장	1952년
나의고지	리건우	박근상	최창엽	모란봉지하극장	1953년 11월
아름다운친선	리면상	홍승학	리문섭	모란봉지하극장	1953년 11월
콩쥐팔쥐	리면상	홍승학의	리문섭외	모란봉극장	1954년 11월
청년근위대	메이 뚜스	김기덕외	리서 향	모란봉극장	1955년 4월

## (2) 기 악 곡

작 품 명	작곡자	지휘자	연주자	연주년도
오베른서곡	베 베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무도회의 권유	베 베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파란인의 무곡	브로딘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피아노 협주곡 제 5 번	베토벤	김기덕	백운복과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	김기덕	류광덕과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바다의 전설	황학근	박한민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봉화	황학근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교향곡 제 6 번	차이콥스키	박한민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루스팅과 뮤든밀라서곡	그링카	박근상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교향곡 제 1 번	아슈라흐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휘가로의 결혼서곡	모찰트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세레나데	모찰트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대머리 산의 밤	무솔그스키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교향곡 제 1, 2, 6, 7 번	베토벤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9년
바이올린 협주곡	부르흐	김기덕	류광덕과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9년
8개의 러시아민요	랴도브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9년
향토	정진옥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9년
러시아민요조곡	한시형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9년
인민의 친선	그리엘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9년
호도까기인형 조곡	차이콥스키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9년
프렐류드	리스트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9년
피아노 협주곡	차이콥스키	김기덕	에밀 라노바와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9년
바이올린 협주곡	멘델스존	김기덕	황국근과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농촌의 봄	김옥성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루살과 서곡과 무곡	달고피즈스키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교향곡 제 4, 5 번	차이콥스키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교향곡 제 5 번	소스타코비치	김기덕	국립 예술극장교향악단	1948년

교향곡 제3,8번	베토벤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발레 조국	쇼스타코비치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백립 합탁	쇼스타코비치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승리를 향하여	리정언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돌격대 조선	리정언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복구 전설장으로	리정언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승리의 기록	신영철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민요 조곡	홍승학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민요 련곡	김영규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중국가요 련곡	김영규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인민가요 련곡	김영규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백영나무	림스키콜라코프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행진곡	이와노브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용사의 이야기	라드께비츠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쓸스장군	스베즈니꼬브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백조의 호수조곡	차이콥스키	박근상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오네긴 중 플로네에즈	차이콥스키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팔려간 색시 서곡	스메마나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황상 원무곡	그린까	박근상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까마린스끼야	그린까	박근상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피아노 협주곡	리스트	김기덕	백운복과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피아노 협주곡	까마립스키	김기덕	박현숙과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바이올린 협주곡	위니아우쓰끼	김기덕	류광덕과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중국 광상곡	서성해	박근상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삼진더마	하록정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중
교향곡 제 2 번	아슈라휘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교향곡 제 5 번	베토벤	리형운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향토의 노래	김린옥	김기덕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전사들의 이야기	김길학	홍승학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아름다운 마을	리건우	김기덕	문학준과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편지 받은 전사	최수동	문학준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교향곡 제 1 번	최수동	리형운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피아노협주곡 제 1 번	쇼팡	김기덕	리경린과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피아노협주곡 제 1 번	리스트	김기덕	백운복과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교향곡 제 6 번	차이콥스키	리형운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교향곡 제 8 번	슈벨트	리형운	국립예술극장교향악단	전쟁직후

마이 올린 협주곡 제 1 번 까마레 호스끼		김기덕	백고산과 국립 예술극장 교향악단	전쟁 직후
백조의 호수	차이콥스키	박근상	국립 예술극장 교향악단	전쟁 직후
까마린스까야	그린까	박근상	국립 예술극장 교향악단	전쟁 직후
파아노 협주곡 제 1 번	차이콥스키	홍승학	백운북과 국립 예술극장 교향악단	전쟁 직후
승리	문경옥	리형운	국립 예술극장 교향악단	전쟁 직후

## (3) 무용음악

곡명	작곡자	안무자	공연장소	공연년도
애국자들	황학근	정지수	국립 예술극장	1949년 3월
들꽃	차이콥스키	정지수	국립 예술극장	1949년 3월
헝가리 춤	브람스	사진	국립 예술극장	1950년 6월
추수	한시형	정지수	국립 예술극장	1950년 6월
가을의 환상	쇼팡	조득현	국립 예술극장	1950년 6월